

2016 사업보고서 2



2016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

장은하 · 김은경 · 김정수 · 천숙연



2016 사업보고서-2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

연구책임자 : 장 은 하 (본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공동연구자 : 김 은 경 (본원 연구위원)

김 정 수 (본원 연구원)

천 속 연 (본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장은하·김은경·김정수·천숙연(2016).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그동안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논의에 있어 젠더이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에서도 양성평등 목표가 다섯 번째 독자목표이자 다른 목표에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되는 범 분야 이슈로서 포함되어 있으며, 양성평등의 달성 없이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나, 양성평등 분야 ODA와 관련해서는 많은 개선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1년도부터 본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아태지역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과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차를 맞는 본 연구사업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협력국 초청연수를 개최하여 정책컨설팅에 활용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확산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협력국 현지 연구기관 및 UN Women 위탁을 통한 공동협력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협력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과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앞으로 4개 협력대상국을 넘어 아태지역 여성정책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 정부의 성 평등 원조사업이 증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신 국내외 협력기관 및



전문가들과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 그리고 연구를 지원해준
김다현 위촉연구원, 김신아 위촉연구원, 박인영 위촉연구원, 박윤정 연구인턴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연구요약

I.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개요

- UN은 2015년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으로써 새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고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혼, 할례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바,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
-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며, 네 가지 주요 연구 활동으로 구체화하였음.
 - 협력국 초청연수 개최
 -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젠더와 ODA 포럼 개최

- 2016년 진행된 6차년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한국여성 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의 연구 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활용 하여 연구 사업에 적극 사용하였음.

II.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협력국 초청연수인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올해 2016년 SSAGE 워크숍은 4개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함.
- 본 워크숍은 양방향적 워크숍으로서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은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최근의 2차·3차 산업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주제:** 농업 가치 체인 개발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경제역량강화
- **사업대상:** 두 지역(Kampong Chhnang과 Kampong Speu)의 여성농업인과 생산자그룹
- **사업목표:** 여성농업인의 기술적 역량 증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 강화
- **관련국가개발전략:**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 여성경제역량강화전략,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 **사업내용:**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적 훈련 및 네트워크 구축을 투입함으로써 농업인의 약 70% 여성이 기술을 습득하고 농산물 수확을 증대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

-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기 보다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내지는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고용 보다는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사업제안서 개요

- **주제:** 신생 영세사업 여성창업자 역량강화
- **사업대상:** 자카르타, 자바섬 지역의 영세 여성창업자
- **사업목표:** 여성 창업 역량 강화
- **관련국가개발전략:** 국가중기개발계획
- **사업내용:** 자문가, 훈련시설, 자금, 원재료 등을 투입하여 여성들이 보다 나은 지식과 기술수준을 갖고 생산과 마케팅직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숙련된 여성 기업가 육성과 생산 공정 정형화를 통해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고자 함.

- 미얀마

-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경제발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걸음마 단계이며, 토지소유권 등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못함.
- 사업제안서 개요

- **주제:** 다분야협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 미얀마 Bago지역의 4개 촌의 10개 마을 중 산림의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 **사업목표:** 여성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존 강화
- **관련국가개발전략:** 미얀마 국가개발계획, 유관 부처의 5개년 전략계획
- **사업내용:** 역량개발훈련과 교육물품 제공 및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산림면적을 증가시키고 친환경물품 생산에 참여하는 여성노동 증대를 목표로 함.

- 베트남

-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사회주의적 국가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과 사회보험, 은퇴연령 등 비교적 한발 앞선 여성정책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 사업제안서 개요

- **주제:** 하노이 Thach That 지역의 Binh Yen 공동체 Linh Son 마을의 청정 농작물 재배를 위한 여성의 의사결정능력 강화
- **사업대상:** 이 지역에서 채소 재배하는 여성과 그 가족, 채소 공급자 및 소비자
- **사업목표:** 농작물 재배에 있어 여성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 **관련국가개발전략:** 사회경제 개발 계획 달성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전략, 인적자원개발전략
- **사업내용:**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며 여성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공급망 확충을 통해 여성교육을 확산하고 이를 대중에게 홍보하고자 함.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에서 본 워크숍은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면에서 두루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기관방문의 현장성에 만족감을 보여 이론과 실무 연계가 중요함을 나타냄.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다지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 향후 젠더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고려사항
 - 각기 다른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따라 기대하는 요소 및 정책적 개입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 및 맞춤형 워크숍이 필요함. 사업제안서를 보면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여성 농업인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캄보디아는 기초적인 판로 확보에 초점을 두는 반면, 베트남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청되는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였음.
 - 모든 사업제안서가 단일 부처 혹은 단일 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의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함. 향후 현지의 성 주류화 사업 추진 시, 현지의 여성 전담부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현지 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젠더는 범분야적 이슈이기 때문에 젠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현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더욱 중요함.
 -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한국은 공여국으로서 젠더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적 개발협력 목표인 SDG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협력국 위탁연구

- 현재 개도국은 여성 지위 및 정책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와 이를 위한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증거기반 정책수립이 저해되어 양성평등 발전이 더딘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4년도부터 협력국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협력국 위탁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음. 올해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4개 협력국의 현지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국가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1〉 4개 협력국 위탁연구 개요

국가명	개요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캄보디아 여성의 농촌 경제개발 참여 • 위탁기관: 캄보디아 Life with Dignity Learning Center • 연구내용: 캄보디아 여성의 농촌개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캄보디아 여성의 생활여건을 살피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지위향상을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해 연구를 진행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2019년 총선을 위한 정당의 차별철폐 정책 • 위탁기관: 인도네시아 여성연구원 • 연구내용: 2019년 총선에서 더 많은 여성 당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정당의 여성할당제와 그 보완사항에 대해 연구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주제: 미얀마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소액금융 서비스 • 위탁기관: 미얀마 기업인 간부연합 • 연구내용: 소액대출 서비스의 농촌여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그 활용성 및 방향성에 대해 젠더관점에서 연구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주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여성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위탁기관: 베트남 노동사회연구소 • 연구내용: 베트남 자유무역협력과 관련하여 현 베트남의 여성인력양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검토하고 2016~2025년 베트남 여성인력양성의 도전, 기회, 위협 요소를 분석하여 베트남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연구

- 본 위탁연구를 통해 현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분야에서 여성 지위 향상과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현지 연구 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사업 발굴 및 현지 여성 지위 및 정책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국제기구 위탁연구
 -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도국 현지의 기초연구 부족문제를 해결 하며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양성평등분야의 거시적 트렌드 파악을 목적으로 함. 2013년 UNESCO 방콕사무소의 협력을 시작으로 지역적 차원의 글로벌 젠더 이슈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오고 있음.
 - 특히 올해는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와 함께 “아태지역에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DGs 5번, 양성평등 지표 기초선 연구”를 주제로 2개년에 걸친 연구가 진행 중임.
- 위탁연구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국내 여성정책 연구의 역량을 강화 및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을 통해 향후 맞춤형 여성정책 시행과 개발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쓰일 예정임. 이 위탁연구 수행에 있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현지 연구기관 및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진행 단계에서 컨설팅에 도움을 줌으로서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다양화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음.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ODA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아태지역 협력대상국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을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하고 있으며 사례별로 영문화작업을 거쳐 별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음.
 - 정치, 경제, 인재, 보건 등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한국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발간하여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자문 제공을 위한 활용을 목표로 함.
 - 특히 올해는 아래의 세 가지 주제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총 23종 사례연구가 완료되었음.

- 2016 사례연구 1: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의 추진목적,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이원화체계를 설명하며 특히 어린이집 확충 정책, 보육료 국비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 및 육아지원정책의 과제를 연구하였음.
- 2016 사례연구 2: 여성정치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
 - 의회 입법과정의 시민참여와 의회 내 여성의원 증가 및 의정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성공적인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기본 덕목과 사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분석함. 특히 성평등 의정모니터링인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와 지방의회 대상 의정모니터링 활동의 시작 배경과 현황, 그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파악하고 시사하는 바에 대해 연구하였음.
- 2016 사례연구 3: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원스톱 서비스: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설립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립 과정과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한 후,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언급함. 현재까지 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음.
- 금년도 진행된 세 건의 사례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도국 적용에서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육아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함께 발전한 정책으로 개도국여성의 경제참여 제고를 위해 도입 가능한 정책이지만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가별 여성의 경제참여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한국의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남성에 비해 성 인지적 입법과정에 적극적임을 보여 여성의 대표성이 갖는 의미도 크지만, 지속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시적 시행이라는 한계를 보였음. 따라서 개도국의 이러한 사업은 외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의정모니터링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여성인권과 관련된

도전과제가 있는 개도국에게 의미하는 바가 큼. 한국의 시행착오에서 더 나아가 설립 단계에서 전국적 차원의 수요와 운영을 위한 인력규모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 다양한 기관과 역할분담 협의로 센터운영의 지속성을 이뤄야 할 것임.

V. 젠더와 ODA 포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내·외 학계, NGO 단체, 국제기구, 정부기관의 개발협력 및 젠더분야의 전문가들을 포럼연사로 초청하여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연 4회 젠더와 ODA 포럼을 개최함.
-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젠더와 개발관련 지식공유를 위해 젠더와 ODA를 접목하여 ODA 사업 평가, 농촌개발, 환경, 국내외 ODA 최신 중점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함.
- 이를 통해 국내외 ODA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연구교류를 도모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한국 정부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개발협력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함.
- 2016년도에 개최된 4회의 젠더와 ODA 포럼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 제 21차~24차 젠더와 ODA 포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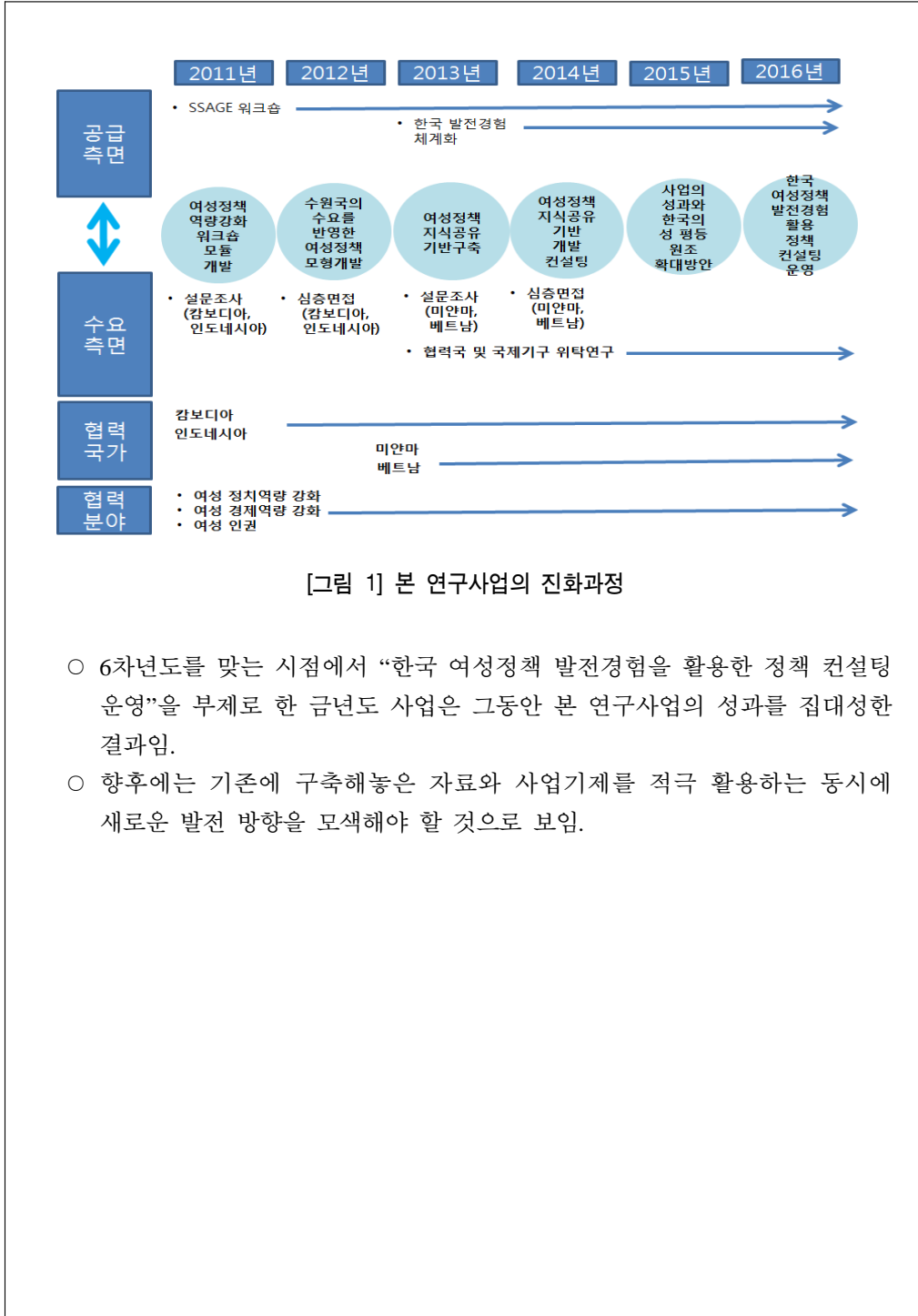
차수	개요
제2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ODA 사업평가 • 강사: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 일시 및 장소: 2016.3.29. 15:00~17:00 본원 지하1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ODA 사업에 있어 사업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평가보다 그 결과를 통해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젠더사업의 평가지표 부족과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함.
제2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ODA와 SDGs • 강사: 김경량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 이용진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대표 • 일시 및 장소: 2016.5.18. 10:30~13:00 본원 3층 회의실 • 주요내용: 농촌개발 분야 ODA의 중요성과 여성들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ODA 사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함. 특히,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관련 베이스라인 구축과 라이드라인 제공의 장기국제개발계획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음.

차수	개요
제2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한국국제협력단의 최신 중점분야 사업 및 사례 소개 • 강사: 김병관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실장 • 일시 및 장소: 2016.12.07. 15:00~17:00 본원 지하1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한국의 개발원조 사업을 선도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중점 사업 분야 및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개발원조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며 향후 여성정책 연구원의 ODA 사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함.
제2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SDGs와 환경 • 강사: 장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협력실장 • 일시 및 장소: 2016.12.16. • 주요내용: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범분야로 다루지는 젠더와 환경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그 접점을 찾아 해결방법 및 환경과 여성관련 향후 ODA 사업 연구 주제 개발을 고민함.

- 국제사회는 2030 개발의제에 합의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젠더는 SDGs 내에서 다른 분야에서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본원 ODA 사업 연구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고취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2016년도 젠더와 ODA포럼에서는 국제개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학계, 시민단체, 유·무상원조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본원 연구진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함.
- 본 포럼을 통해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를 함으로서 본원 연구진의 ODA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ODA 사업 진행방향 수립 및 정책제언을 통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SDGs 이행관련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일조하고자 함.

VI. 6차년도 연구사업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향

- 본 연구사업은 다차년에 걸친 ODA 연구사업으로서 연차를 더해가면서 그 내용과 초점이 종적, 횡적으로 확장·진화되어 오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음.



[그림 1] 본 연구사업의 진화과정

- 6차년도를 맞는 시점에서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 컨설팅 운영”을 부제로 한 금년도 사업은 그동안 본 연구사업의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임.
- 향후에는 기존에 구축해놓은 자료와 사업기제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목 차

I.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개요	1
1.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사업의 배경	3
나. 연구사업의 목적	5
2. 연구사업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사업 내용	5
나. 연구사업 방법	6
3. 보고서의 구성	7
II.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9
1. 사업배경 및 목적	11
가. 사업배경	11
나. 목적	12
다. 기대효과	13
2. SSAGE 워크숍 개요와 운영방식	13
가. 워크숍의 개요	13
나. 워크숍 추진 과정	17
다. SSAGE 워크숍의 특징	19
3. 강의 및 기관방문 세부내용	20
가. 강의	20
나. 기관방문	30
4. 참석자 발표 세부내용	37
가. [참석자 발표 1] 협력국 여성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인권 정책 ..	37
나. [참석자 발표 2] 국가별 사업제안서	44

5. SSAGE 워크숍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53
가. 참석자 사전-사후 자기평가 결과	53
나. 참석자들의 워크숍 평가 결과	55
다. 향후 SSAGE 워크숍 운영에 대한 시사점	59
6. 현지 여성정책 수요 및 향후 협력 시 고려요소	61
가. 현지 여성정책 수요의 특징	61
나. 향후 젠더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시사점 및 고려사항	62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65
1. 사업배경 및 목적	67
가. 협력국 위탁연구	67
나. 국제기구 위탁연구	68
2. 2016년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와 운영방식	69
가. 2016년 협력국 위탁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69
나. 국제기구와의 위탁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72
3.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세부내용	75
가. 협력국 위탁연구 세부내용	75
나. 국제기구 위탁연구 세부내용	96
4. 성과 및 제언	100
Ⅳ.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103
1. 사업배경 및 목적	105
2.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105
가. 개요	105
나. 운영방식	108
3. 세부내용	109
가. 2016 사례연구 1: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109

나. 2016 사례연구 2: 여성정치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	114
다. 2016 사례연구 3: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원스톱 서비스: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120
4. 시사점 및 제언	125
가. 개도국 적용에의 시사점	125
나. 향후 과제	126
V. 젠더와 ODA 포럼	129
1. 사업배경 및 목적	131
2. 젠더와 ODA 포럼 개요와 운영방식	131
3. 세부내용	132
가. 제 21차 젠더와 ODA 포럼	132
나. 제 22차 젠더와 ODA 포럼	133
다. 제 23차 젠더와 ODA 포럼	135
라. 제 24차 젠더와 ODA 포럼	135
4. 성과 및 제언	136
VI. 6차년도 연구사업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향	139
1. 다차년도 연구사업의 진화과정 및 의의	141
2. 향후 연구사업 추진방향	143
■ 참고문헌	145
■ Abstract	147

표 목 차

<표 II-1>	6개년 SSAGE 워크숍 개요	11
<표 II-2>	SSAGE 워크숍 일정표	14
<표 II-3>	제8차 아태포럼 개요	16
<표 II-4>	4개 협력국 워크숍 관심 주제분야 수요조사 결과	18
<표 II-5>	캄보디아 사업제안서 개요	44
<표 II-6>	인도네시아 사업제안서 개요	46
<표 II-7>	미얀마 사업제안서 개요	49
<표 II-8>	베트남 사업제안서 개요	51
<표 II-9>	참석자 사전-사후 자기평가	54
<표 II-10>	워크숍 전체평가	56
<표 III-1>	2014~2016년 협력국 위탁연구 주제 및 협력기관	67
<표 III-2>	2013~2016년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	68
<표 III-3>	2016 협력국 위탁연구 개요: 연구주제, 협력기관, 연구 내용 및 방법	69
<표 III-4>	2016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 연구주제, 협력기관, 연구 내용 및 방법	73
<표 III-5>	연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10개 마을	76
<표 III-6>	표본 크기	77
<표 III-7>	수혜자 및 비수혜자 샘플 크기	87
<표 III-8>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개요	99
<표 IV-1>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목록(2012~2015)	106
<표 IV-2>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	111
<표 V-1>	2016 젠더와 ODA 포럼 개요	132

그림 목 차

[그림 II-1] SSAGE 워크숍의 전체 추진일정	17
[그림 III-1] 협력국 위탁연구 전체 추진일정	71
[그림 III-2] 국제기구 위탁연구 추진일정	74
[그림 IV-1]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보고서	107
[그림 IV-2]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 전체 추진일정	108
[그림 IV-3] 17대 국회 평등국회지킴이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기본 진행 ...	117
[그림 VI-1] 본 연구사업의 진화과정	141





I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개요

1.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사업 내용 및 방법	5
3. 보고서의 구성	7



1.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사업의 배경

- 젠더는 범 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서 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 UN을 중심으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서도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목표가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로서 다루어진 바 있음.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어져 오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는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진 바 있음(Esplen, 2015: 15).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조혼, 할례 등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MDGs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과 대표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 평화 및 재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생식보건 및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인(universal) 권리를 확보한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 역시 큰 성과로 보고 있음.

- 한편,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와 관련해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임. 2013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전체 원조의 10% 수준에 머무

4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는 수준임(OECD, 2015:20).

-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OECD, 2008; OECD, 2012), 국내적으로도 양성평등 ODA 확대 및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된 본 연구사업은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1차 협력국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미얀마, 베트남을 2차 협력국으로 추가하여,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음.
- 협력국 현지의 양성평등 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공유 및 개발컨설팅과 관련된 여러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한국의 성 평등 원조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해옴. 매년 연구 소주제가 다음과 같이 진화해왔음.
 - 1차년도(2011):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모듈개발
 - 2차년도(2012):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형개발
 - 3차년도(2013):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 4차년도(2014):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 5차년도(2015):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 방안

나. 연구사업의 목적

- 앞서 언급된 것처럼, 본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아태지역 개도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의 증진이고, 둘째는 한국의 성 평등 원조사업 확대임.
- 2016년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 본 연구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총 24종)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직접 활용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축적해온 자료들을 연구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축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동시에 본 연구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실시해온 협력국 현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위탁을 통한 공동협력연구를 진행하여 협력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 연구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사업 내용

-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그동안 축적해온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20종, 2012-2015년) 사례연구에 대한 협력국의 수요를 조사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국 초청연수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 개최



6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개도국의 상황은 여성의 낮은 지위와 문제점을 계량화하거나 분석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현지 소규모 공동협력연구라는 채널을 통해 개도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정치, 경제, 인권, 보건 등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한국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영역화하여 발간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 3종을 추가하여 총 23종 사례연구를 완료

나. 연구사업 방법

- 협력국 여성정책 관계자 대상 초청연수(SSAGE 워크숍) 개최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집필자 및 전문가 초청, 관련기관 방문
 - 국내 ODA 시행기관과 협력
- 위탁을 통한 공동협력연구 진행
 -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위탁연구
 - 국제기구(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위탁연구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집 발간
 - 해당주제 분야 원내·외 전문가에 집필 위탁 및 영역하여 별도 보고서로 발간
- 젠더와 ODA 포럼 운영 (연4회)
 - 국내·외 학계, NGO 단체, 국제기구, 정부기관의 개발협력 및 젠더분야의 전문가들을 포럼연사로 초청하여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

3. 보고서의 구성

-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Ⅱ장): 한국의 발전경험 체계화에 기반한 협력국 정책관계자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SSAGE 워크숍의 배경 및 목적, 개요와 운영방식, 세부내용, 참석자 발표 등을 성과 및 제언과 함께 제시함.
-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Ⅲ장): 아태지역 협력국 및 UN Women 위탁연구 진행의 배경 및 목적, 개요 및 운영방식, 세부내용을 성과 및 제언과 함께 제시함. 그 주제와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2019년 총선을 위한 정당의 차별철폐 정책 (인도네시아 여성연구원, WRI)
 - 베트남: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여성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베트남노동사회연구소, ILSSA)
 - 미얀마: 미얀마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소액금융 서비스 (미얀마 기업인 간부연합, MBE)
 - 캄보디아: 캄보디아 여성의 농촌 경제개발 참여 (Life with Dignity Learning Center, LWD-LC)
 - 국제기구: 아태지역에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SDGs 5번, 양성평등 지표 기초선 연구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Ⅳ장):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3편에 대한 배경 및 목적, 개요 및 운영방식,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성과 및 제언을 제시함. 2016년도에 연구된 사례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음.
 - 한국의 육아지원 정책
 - 여성정치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평등 의정 모니터링 사례: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사례를 중심으로



8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젠더와 ODA 포럼(V장):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매 분기 1회 개최되는 젠더와 ODA 포럼의 배경 및 목적, 개요 및 운영방식,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성과 및 제언을 제시함.

- 사업 추진 성과(VI장): 전체 연구사업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① 한국 여성 정책 발전경험과 협력국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 컨설팅의 운영, ② 위탁 연구를 통한 현지 연구역량 강화 및 현지 여성정책 현황에 대한 조사, ③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기반한 제언을 제시함.

Ⅱ.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1. 사업배경 및 목적	11
2. SSAGE 워크숍 개요와 운영방식	13
3. 강의 및 기관방문 세부내용	20
4. 참석자 발표 세부내용	37
5. SSAGE 워크숍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53
6. 현지 여성정책 수요 및 향후 협력 시 고려요소	61



1. 사업배경 및 목적

가. 사업배경

- 협력국 초청연수인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은 본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 본 SSAGE 워크숍은 4개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매년 연구주제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함.

〈표 II-1〉 6개년 SSAGE 워크숍 개요

연도	주제	개최일시 및 장소	참가자
2011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2011. 9. 18 ~ 10. 1 한국 서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현지 공무원, NGO 활동가, 정치인 등 30명
2012	여성정책·사업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2012. 5. 9 ~ 5. 11 캄보디아 시엠립	캄보디아 공무원, 정치인, 학계, NGO 활동가 약 46명
	여성정책·사업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2012. 5. 28 ~ 6. 1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공무원, 정치인, 학계, NGO 활동가 약 40명
2013	미얀마, 베트남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2013. 9. 9 ~ 9. 13 한국 서울	미얀마, 베트남 여성정책 관련 정부인사, 시민사회 활동가 및 학계 인사 약 28명
2014	아태지역 젠더정책 워크숍 및 정부 간 대화	2014. 9. 29 ~ 10. 3 한국 서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젠더정책 관련 고위급 공무원 및 정부인사 등 약 25명

12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연도	주제	개최일시 및 장소	참가자
2015	부처 간 젠더 네트워크 강화	2015. 10. 6 ~ 10. 8 한국 서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여성정책 전문가(정부 및 연구기관 등) 약 20명
2016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	2016. 9. 26 ~ 10. 1 한국 서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여성정책 전문가(정부 및 연구기관 등) 약 23명

- 2016년도 SSAGE 워크숍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전체 연구사업의 부제 하에 2012년도부터 축적해온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집의 주제 분야에 대한 협력국의 수요를 조사하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여성인권을 주제로 선정해 심화된 맞춤형 정책컨설팅 형태로 진행하였음.(* 수요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II-2. SSAGE 워크숍 개요와 운영방식’을 참고 바람.)
- 또한, 본 워크숍은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포럼(이하 제8차 아태포럼)”과 연결하여 진행함. SSAGE 정책컨설팅 워크숍 참석자들이 “제8차 아태포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을 제시 및 공유하고, 두 행사 간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함.

나. 목적

- 2개 수요 주제분야(경제역량강화 및 인권)에 대한 심층적인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공유를 통한 현지 여성정책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 본원과 현지 연구기관 간 위탁연구 결과 발표 및 국별 행동계획(Action Plan) 개발을 통한 4개 협력국가의 양성평등 의제 공유
- 4개 협력국 및 한국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젠더분야 협력사업 확대방안 모색

다. 기대효과

- 4개국 간 여성지위 현황에 대한 공유를 통한 여성정책 개발의 필요성 제고
- 4개국 간 네트워크 증진을 통한 남남협력 및 한국정부와의 협력증진
- 한국정부의 성 평등 원조사업 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2. SSAGE 워크숍 개요와 운영방식

가. 워크숍의 개요

- 행사명: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SSAGE)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 (2016 KWDI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 Workshop: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nd Human Rights)
- 기 간: 2016년 9월 26일(월) ~ 10월 1일(토)
- 장 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서울 센터마크 호텔
- 참석자: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전담부처 및 유관부처 공무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총 23인
- 워크숍 프로그램
 - 2016년 SSAGE 워크숍은 사전 조사를 통하여 협력 4개국의 관심 분야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인권)를 선정하였고, 강사를 초청하여 해당 강의를 듣고, 관련 기관을 탐방하는 형식으로 연계함.
 - 한국의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 관련 강의 및 기관방문 3회
 - 한국의 여성 인권 정책 관련 강의 및 기관방문 4회
 - 사업제안서 개발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강의 1회 및 국가별 사업 제안서 개발을 위한 워크데이블 2회
 - 참석자 발표세션: 현지 여성정책 현황 및 사업제안서 발표 2회

〈표 II-2〉 SSAGE 워크숍 일정표

SSAGE 워크숍				제8차 아태포럼	10/1 (토)
9/26(월)	9/27(화)	9/28(수)	9/29(목)	9/30(금)	
본원	센터마크호텔	센터마크호텔	센터마크호텔	플라자호텔	
개회식 (09:30-11:00)	[강의 4] KOICA의 젠더사업 소개 및 사업제안서 작성 요령 (09:00-11:00)	[기관방문 3] 한국여성의 전화 (10:00-12:00)	[협력국 위탁연구 세미나] (09:00-11:00)	제8차 아태포럼	문화 탐방
[강의 1] 한국의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 (10:00-12:00)	[참석자 워크테이블 1]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11:00-12:00)		[참석자 워크테이블 2] 국가별 사업제안서 작성 (11:00-12:30)		
[강의 2] 한국의 여성 인권 정책 (13:30-15:00)	[강의 5] 한국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13:30-15:30)	[참석자 발표 1-1] 협력국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 (14:00-15:30)	[참석자 발표 2] 국가별 사업제안서 발표 (14:00-15:30)		
[강의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15:30-16:30)	[기관방문 2] 고양여성인력 개발센터 (16:30-18:00)	[참석자 발표 1-2] 협력국 여성인권 정책 (16:00-17:40)	[정리 및 평가] (16:00-17:00)		
[기관방문 1] 해바라기센터 (17:00-18:00)					

○ 세션별 개요

- 강의 1~5

- [강의 1]과 [강의 2]: 첫 번째 두 강의에서는 주제분야(여성 경제역량 강화, 여성 인권)의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개괄적 소개가 이루어짐.

II.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15

- [강의 3]과 [강의 5]: 주제분야(여성 경제역량 강화, 여성 인권)별로 보다 세부적인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함.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윈스톱 서비스 사례(강의 3)가 소개되고, 여성 경제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여성 농업인 정책(강의 5)이 소개됨.
- [강의 4]: KOICA의 젠더사업과 함께 사업제안서 작성 요령을 소개하여 향후 참석자들에 SSAGE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별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함.
- 기관방문 1~3
 - [기관방문 1]과 [기관방문 3]: 한국의 여성인권 관련 기관으로서 해바라기센터(기관방문 1)와 한국여성의전화(기관방문 3)를 방문하여 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례가 소개됨.
 - [기관방문 2]: 한국의 여성 경제역량 강화 관련 기관으로서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례가 소개됨.
- 참석자 워크테이블 1과 2

두 차례의 참석자 워크테이블을 통해 참석자들은 국가별로 사업제안서를 개발하여 발표함. 국가별 소그룹 토의 형식으로 첫 번째 워크테이블에서는 사업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워크테이블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 참석자 발표 1-1 및 1-2: 협력국 여성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 인권 정책
 - 2개 주제(여성 경제역량 강화, 여성 인권) 세션별로 4개 협력국(감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참석자들이 여성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 인권 분야의 현지 정책 이슈를 발표하고, 강의 및 기관방문에서 얻은 교훈과 느낀 점을 공유함.
 - [강의 1]과 [강의 2]에서 한국의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과 한국의 여성 인권 정책을 강의한 강사가 각 주제별 세션의 진행을 맡아

16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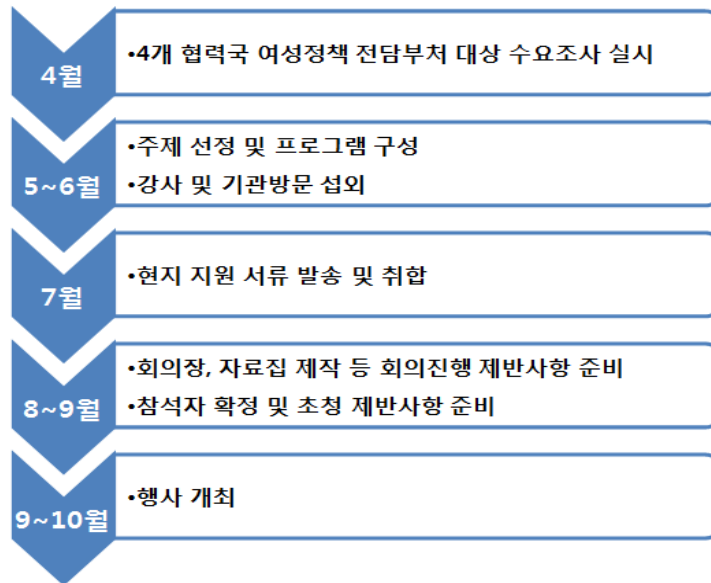
- 주제 분야별 전체 강의와 기관방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함.
- 참석자 발표 2: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 및 발표
참석자 워크데이블을 통해 개발된 국가별 사업제안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짐.
- 협력국 위탁연구 세미나
본 ODA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4개 협력국의 협력기관과 진행한 위탁연구의 중간결과를 SSAGE 워크숍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각 국가별 SSAGE 참석자 중 1인의 토론자가 지정되어 연구에 대한 개선의견 및 현지의 관련 이슈를 공유함.(세부내용은 ‘III. 아태지역 협력국 및 UN Women 위탁연구’ 참조)
- 제8차 아태포럼
본원이 개발협력의 성 주류화 관련 국제적 논의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아태포럼을 SSAGE 워크숍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협력국의 발표자 1인이 지정되어 금년도 포럼 주제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관련하여 현지의 소녀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함.

〈표 II-3〉 제8차 아태포럼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Better Life for Girls : Towards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 일시 및 장소: 2016. 9. 30. (금) 09:30 ~ 17:40/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 (4층)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협력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후원기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정리 및 평가
본 세션은 SSAGE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피드백 및 향후 개선의견을 수렴함. SSAGE 워크숍을 통해 공유된 한국과 아태지역 4개국의 여성정책 사례 및 현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SSAGE 워크숍의 개선방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

나. 워크숍 추진 과정



[그림 II-1] SSAGE 워크숍의 전체 추진일정

- 워크숍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2016년 4월)
 - 본 ODA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축적해온 23개 한국 발전경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여성정책 전담부처를 대상으로 현지의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국가별 여성정책 전담부처는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 베트남: 노동보호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 미얀마: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18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수요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구성 (2016년 5~6월)

- 워크숍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는 하단의 표와 같음.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및 인권보호가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주제로 선정됨.

〈표 II-4〉 4개 협력국 워크숍 관심 주제분야 수요조사 결과

분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경제적 역량강화	V	V		V
교육 및 인적자원	V			
성주류화 정책			V	
정치적 역량강화				
인권 보호		V	V	V
가족 및 인구				

- 워크숍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가 중복되는 편이고, 워크숍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한국과의 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협력국 간 지식공유 및 남남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4개 협력국 공통 워크숍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함.

□ 현지 참석자 모집: 현지 지원 서류 발송 및 취합 (2016년 7월)

-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현지의 여성정책 전담 부처에서 해당 부처 및 유관부처 공무원 5인 내외 및 시민사회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참석자를 구성해왔으며, 국가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4개국 총 25명)
 - 캄보디아: 캄보디아 여성부(MOWA) 국장 및 부국장/과장급 3인, 토지관리·도시계획부 부국장급 1인, 지역개발부 부국장급 1인, 캄보디아 연구개발센터 프로그램 관리자 1인(총 6인)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MOWECP) 국장급 1인,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부국장급 1인, 협동조합·중소

II.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19

기업부 과장급 1인, 인도네시아 여성정치인연합(Indonesian Women's Political Caucus) 사무국장 1인,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인연합 대표 1인(총 5인)

- 미얀마: 미얀마 사회복지부 부국장급 및 사무관 3인, 교육부 부국장급 1인, 천연자원·환경보호부 사무관급 1인, 미얀마 라디오·TV 사무관 1인(총 6인)
- 베트남: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 부국장급 1인,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1인,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무관급 1인, 베트남 여성지위위원회(NCFAW) 사무관급 1인, 베트남여성연맹 국장급 1인, 베트남 양성평등·가족·여성·청소년연구원(CSAGA) 연구원 1인(총 6인)
- 각 국가의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토론 및 발표 등의 다양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참석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함.
 - 참석자 발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인권 관련 4개국 현지의 현황 및 정책 발표
 - 참석자 발표 2: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별로 개발한 사업제안서를 발표
 - 위탁연구 세미나 토론: 4개 협력국의 여성 및 정책 현황에 대한 위탁연구에 대한 토론
 - 제8차 아태포럼 발표: 4개 협력국의 소녀 관련 정책현황 소개

다. SSAGE 워크숍의 특징

- 첫째,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여성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함.
 - 2013년도부터 구축해온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자세한 내용은 IV장 참고)를 바탕으로 협력국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해 한국이 여성정책 분야에서 갖는 비교우위와 협력국의 수요를 두루 반영한 워크숍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참석자들이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과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그 해결

20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많이 포함시킴.

- 참석자 발표 1-1 및 1-2, 협력국 위탁연구 세미나, 제8차 아태포럼을 통해 여성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 인권, 소녀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력국 현지의 현황 및 정책을 공유하고, 참석자들 스스로 현지의 여성 정책 이슈를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두 번의 국가별 워크데이블을 통해 국가별 사업제안서를 개발해 발표함으로써 참석자들 스스로 현지의 여성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셋째, 참석자들이 현지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남남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과의 협력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도록 구성함.

- 앞서도 언급된 것처럼, 참석자들이 SSAGE 워크숍 과정을 통해 참석자들이 현지의 여성정책 이슈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이 다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태지역 차원의 상호 학습과 향후 지역적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함.

3. 강의 및 기관방문 세부내용

가. 강의

1) [강의 11] 한국의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 (전남대학교 전명숙 교수)

□ 강의 주요 내용

- 한국의 평등고용정책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사회적 측면으로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차별이 현재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 경제적 측면으로는 한국은 2026년까지 초고령 사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II.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21

- 한국의 여성의 교육수준과 직무 능력은 남성에 비해 뒤쳐지지 않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OECD의 평균 수치를 타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평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평등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국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출산 및 육아에 초점을 두기 시작함.
 - 대표적으로 출산휴가(maternity-leave benefits), 유산 및 사산휴가(miscarriage and stillbirth leave benefits), 육아휴가(child-care leaves), 보육 시설(child-care facilities), 고용보험기금(employment insurance fund)으로부터의 일정 급여 제공 등이 있음.
-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는 직장 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대처하는 행동으로서 대표적으로는 평등고용기회와 일·가정양립지원이 있음.
 - 차별철폐조치는 2006년에 국내의 546곳의 공공기관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사설기관을 포함한 1,945곳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차별철폐조치를 실행한 후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직장인은 과거 35.24%(2012년 기준)에서 37.09%(2014년 기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과장 직급의 여성은 동일년도 16.62%에서 18.37%로 상승하였음.
 - 기업 내의 차별철폐조치 활동을 보다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시도하고,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을 시에 따르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벌금 제도를 적용해야 함. 또한, 기업과 사회문화적 환경 및 인프라를 확장시켜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이 양육 등과 같은 문제로 경력단절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계획 및 전략이 있음.
 - 직장 내에서의 여성의 진급을 보장해야하며, 여성 창업과 개인 사업

22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을 활성화해야함.

- 또한 여성이 고용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여성 친화적 직업(women-friendly jobs)을 창출해 낼 뿐만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센터(women's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및 새일센터(sae-il center)와 같은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 늘어야 함.
-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을 위하여 탄력근무제(flexible working hours) 프로그램 및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family-friendly organization culture)를 조성해야 함.

□ 주요 논의사항

- 차별철폐제도에 따른 한국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도에 대해 질문함과 동시에 4개 협력국의 현지 상황에 대해 공유하였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고용의 기회와 동일한 급여 제공에 대한 사례가 미비하다고 언급 됨.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도 과장 이상의 특정 직급에 대한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정부의 관여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고 있다는 현실을 전달함.
- 한국의 차별철폐제도에 따른 구체적 사례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각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실제 사용률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지 알아보았고, 4개국의 사회보험 제도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태를 비판함으로써 각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제 활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 이 외에도 여성창업 관련 한국의 정책 및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일한 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공유함. 그러나 한국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새일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진한 제도 집행 보장되지 않은 여성 창업의 현

실적 어려움에 대한 실태를 공유함.

2) [강의 2] 한국의 여성 인권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연구위원)

□ 강의 주요 내용

-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여성의 순결(chastity)이 강조되는 강력한 유교주의 사상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편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들이 신고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했음.
 - 그러나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라고 규정하면서, 각 국가들이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및 지원을 촉구하였음.
 -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기존의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 도전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여성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여성 관련 노동법 및 가족관계 법 등이 개정될 수 있었으며 여성폭력의 이슈가 공론화되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따름.
 - 전통적인 젠더규범에 대항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1991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1983년에 설립된 한국여성의전화가 있음.
-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유교주의 사상에 반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가들은 1990년대 여성폭력과 관련된 일련의 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씀.
 -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19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반을 마련함.
 -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4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련 연구 및 교육 활동을 규정함. 이러한 법률들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더 많이 알리게 되고, 관련 서비스도 증가함.

- 이 외에도 2004년에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로서, 정부가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해야할 의무를 규정함. 이 법률에 기반하여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증가함.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서비스가 확대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의 운영이 시작됨.
-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 처벌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됨.

□ 주요 논의사항

- 4개 협력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를 공유하면서, 법의 제정을 위해 UN 등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법이 있더라도 그 이행 상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폭력 관련해 비교적 완성된 형태의 법이 존재하지만, 사법집행기관, 즉, 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법의 집행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 이와 관련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
- 4개 협력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공유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초기 논의가 시작된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정부 혹은 공여기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의 NGO가 관련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역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여성폭력 관련 한국의 정책 및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짐. 예를 들면,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 운영을 위한 한국정부의 기금 지원 정도, 여성폭력 피해 관련 통계조사,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경우,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발전에 있어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가의 기여가 컸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됨.

3) [강의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해바라기센터 장세연 부소장)

□ 강의 주요 내용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임.
 - 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총 3가지로 ① 의료 및 심리 치료, ② 법적 지원, ③ 사회적(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해바라기센터(아동)의 주요 사업은 3가지로 ① 피해자 지원, ②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③ 12년간의 연구기간을 가진 연구 지원 사업이 있음. 또한 피해아동의 가족, 부모님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함. 본 센터는 피해 아동들이 건강한 회복 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해바라기센터(아동)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며,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는 의료지원을 받는 삼자협력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센터에 소아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36개의 해바라기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들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해바라기센터(아동), 해바라기센터(긴급), 해바라기센터(통합)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지원대상과 제공서비스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된 것임.
 - 해바라기센터(아동)의 경우, 2004년 서울에 첫 센터가 개소하였고,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전국에 8개의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생겨 운영되고 있음.

- 해바라기센터가 가지는 차별성은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기관들을 개별 방문해야 했던 이전의 시스템에서, 해바라기센터 한 곳에서 신고접수 및 법적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아동이 개별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해바라기센터(아동) 방문으로 필요한 기관들의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은 24시간 아동성폭력 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사례접수는 피해자 또는 부모의 센터 직접 내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전화 접수, 병원, 경찰, 상담소 등 타기관의 소개나 의뢰를 통한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특이점으로는 사례접수 초기에 상담사가 바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아동정신건강전문가가 피해자를 먼저 진료를 하고, 치료방법을 찾은 후 상담사가 투입되어야할 적절한 시기를 판단한 후, 상담사와 피해자의 대면 상담이 시작됨. 정신과 초진 이후 심리평가를 마치면 아동을 위한 통합진료가 실시됨. 해바라기센터(아동)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는 치료가 다 끝난 후, 피해아동 및 가족들이 처한 환경에 맞게 지역사회의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뜻함.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음. 연세의료원장이 센터장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 의료지원팀(간호사, 정신과 전문의), 심리지원팀(임상심리전문가), 상담법률지원팀(전문상담원),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가 자문단은 법률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정신건강전문의로 구성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상담은 법률지원팀과 심리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이 모든 센터구성원들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여는 등으로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음.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시설은 아동들이 편히 대기할 수 있도록 바닥 전체에 매트를 깔 입구 쪽 대기공간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실 및 미술치료실 등이 있음. 사건을 진술하는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진술을 모두 녹화하도록 되어 있음. 진술하는 방은 아동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고, 반대편 방에서 진술을 지켜볼 수 있지만 카메라 등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음. 모든 상담실을 기록 및 녹화하고 있는 기계실이 있음.

□ 주요 논의사항

- 본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기관방문 1]”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4) [강의 4] KOICA의 젠더사업 소개 및 사업제안서 작성 요령
(전 KOICA 젠더전문관 김양희 박사)**

□ 강의 주요 내용

- 한국의 경우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 주류화 정책이 채택되었으나 OECD DAC 가입 이전까지는 한국 정부는 젠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음.
- KOICA에서는 2011년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이 처음 생김. KOICA는 프로젝트 내 성주류화를 위한 방법으로 ‘의제 설정 방법(Agenda setting approach)’, ‘통합 방법(Integration approach)’이 있음. ‘의제 설정 방법’은 여성이 직접적인 수혜자인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통합 방법’은 KOICA의 모든 프로그램과 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임. ‘통합 방법’이 ‘의제 설정 방법’보다 더 쉽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쓰이고 있음.

- KOICA의 프로젝트 성 주류화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젠더분석과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직접수요를 확인, ② 프로젝트에 여성과 관련요소 추가, ③ 프로젝트 실행, ④ 성인지모니터링: 젠더관점에서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제고, ⑤ 피드백이 있음.
- KOICA의 프로젝트 중 물과 보건 프로젝트는 여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을 직접 수혜자로도 볼 수 있음.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물을 길러 가면서 성폭력 등과 같은 위협에 노출됨. 그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과 아이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함. 이 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위해 식수관리위원회의 여성대표를 30~4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남성/여성이 분류된 화장실 건설, 가정폭력방지, 위생교육 등을 포함시킴.
-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조언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지속가능한개발 목표(SDGs)를 기반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국가협력전략(CPS)을 참고해야함. 또한 국가별로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젠더요소들을 꼭 추가할 것. 최근 ODA 동향은 규모나 자금이 큰 프로젝트를 선호함.

□ 주요 논의사항

- 협력국 민간부문이 한국 정부와 ODA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협력국의 NGO와 한국의 NGO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한국 기관에서 KOICA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수월하다고 답함.
-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는 원조국 측에서는 프로젝트 현지화를 위한 노력과 장기 프로젝트 진행과 더불어 수원국의 태도 및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또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쳐 설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었음.

5) [강의 5] 한국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

□ 강의 주요 내용

-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전반적 사회, 경제적 발전 방향을 돌이켜보고 그에 따른 한국 농촌여성의 생활과 삶의 변화 공유.
 - 1960~1980년대: 전쟁 후 가난한 상태에서 산업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농업의 비중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며 농업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농현상이 심화됨.
- 1990~현재: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시작되며 대기업의 식품 생산 장악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가족경영에서 개별경영으로 바뀌고 있고 기존의 자원을 효율화 시켜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하고자 함.
- 여성 농업인의 활성화
 - 규모가 크지 않고 가족, 마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경영함.
 - 남성은 경영의 규모를 넓히고 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하지만 여성은 소비자와 직거래를 선호함.
 - 여성 경영자는 후계자를 양성하며 이는 한국 농업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임.
 - 여성 농업인이 시장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 또한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함.

□ 주요 논의사항

- 여성농업인연합 가입혜택에 대해 논의함. 한국의 여성농업인연합은 주로 농협의 형태였고, 특히 부녀회의 형태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여성 교육에 대한 필요로 인해 조직화되었음.
- 한국의 농업구조조정 정책과 농업 구조정책이 시작되며 농업에 큰 지원이 있었으나 여성에 대한 지원은 극소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농업경영이 남성에 비해 더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공유함.

- 새마을운동에서의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 산림운동, 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 축소되고 있는 한국의 내수시장과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규모 농가도 포함해야함을 강조함. 또한, 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 및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과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는 전자 상거래가 장려되고 있음이 공유됨. 또한, 한국의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 정책인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에 대해서도 소개됨.

나. 기관방문

1) [기관방문 1] 해바라기센터

- 기관소개 주요내용
 - 앞선 “[강의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에서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기관소개가 이루어져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기관소개에 대한 내용은 [강의 3]의 내용을 참고 바람.
- 주요논의 사항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 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있는지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 2008년에 성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해바라기센터가 개소하게 되었음. 현재 교육부에서 아동 성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성폭력 교육 전문가는 없음.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회성의 이벤트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폭력 교육 전문가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음. 여기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학교 등으로 파견강의를 가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이 또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아닌, 일회성의 이벤트성 교육으로 제공되고 있음.

- 센터의 지원이 일시적이라면 지원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지원 완료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원기간 중간에 치료가 중단되는 치료 실패 사례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피해아동이 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3일임. 매일 진료는 가능하지 않음. 아동의 피해상황이 심각한 경우 진단(observation) 과정이 2주간 진행되고, 심리평가는 1주 이내로 결과가 나옴. 결론적으로 통합평가가 완료되는 데는 3주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임. 치료는 보통 3~6개월 내에 완료가 되는데, 5년간 센터를 방문하는 아동의 사례도 있음.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의 경우, 치료기간이 더 길게 걸려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치료종결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 치료의 유지, 관리 종결 등 전반적 과정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
 - 본 센터의 치료 중도탈락률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과정별 탈락률을 통계내고 있음. 센터는 강제적으로 피해아동을 치료로 복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음.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설득을 통해 치료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친족 성폭력 사례의 경우 동거인이 가해자인데 치료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함.
- 전국의 36개소 해바라기센터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각각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던 센터들이 해바라기센터로 모두 통합된 게 불과 작년도임. 센터 유형별로 지원대상의 차이가 조금씩 있음. 피해자가 위기형 센터를 방문한 경우, 대상에 적합한 지원센터

로 안내를 받게 됨. 아동피해자는 아동센터로 연결시켜 줌. 통합형 센터는 아동과 여성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누가 방문하든 모두를 지원 가능함.

- 아동 피해자가 위기센터에 방문한 경우, 해바라기센터(아동)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음. 경찰이 센터 내에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임. 치료는 본 센터에서 제공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 연계하여 피해자를 위한 협력을 하고 있음.
- 평균 방문자수와 방문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작년과 재작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방문자 수는 보통 150명임. 2010년부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방문자 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본 센터만 봤을 때 전화, 온라인, 방문 고객 모두 합치면 700건이 넘게 집계되고 있음.
 - 어떤 통계를 보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경찰 측에서 제공하는 통계들을 보면 신고접수 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성평등 관련 정부통계도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수치의 증가는 이전에는 성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행위들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게 되어 신고가 늘어난 것도 사실임. 성폭력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의 현실임.
 - 서울 해바라기센터(아동)의 경우 신고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사건이 줄고 있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센터들이 더 많이 생겨나 접수 신고 건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여겨짐.

2) [기관방문 2]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 기관소개 주요 내용

- 기관연혁과 관련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0년 2월 노동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2001년 1월에는 여성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함. 2005년 1월에는 경기도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원 변경되고 2009년에는 여성부 고용부 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됨. 2014년 8월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경력개발형) 고양 mice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지정을 받고 2016년 1월 에는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됨.

-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사)한국여성지도자연합 주체로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앞서 연혁에서 살펴본대로 운영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취·창업지원 허브체계 구축으로 원스탑(one stop)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함.
 - 주요활동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상담 및 알선, 기업지원, 사후관리, 5가지의 주요사업이 원스탑 허브체계로 진행됨.
 - 우선,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경력단절여성의 신속한 구직활동을 위해 취업의욕고취 및 구직기술을 향상시키는 직업진로와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으로 5일간 20시간 진행함.
 - 교육사업으로서 매년 70에서 100개의 과정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직업훈련과 상담이 운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고양시지원, 지도자 자격증과정 직업능력개발로 나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사전상담 시스템을 통한 사전상담으로 구직자 유형별 진단 후 지정된 상담사와 심층상담, 교육 및 취·창업연계, 진로재설정이 이루어지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연계받은 원스탑 취업지원을 제공함.
 - 이외에도 창업자를 위한 교육과 보육 및 멘토링,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돕고 센터 내 호호마켓행사를 통해 오프라인 창업자들의 판매를 지원함. 또한, 일대일 심층 상담을 통해 진단 경로를 설정하고 최대 200만원 내 지원을 하는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가 있음.
- 기업지원과 관련해 구인신청을 한 기업에 적합한 인재알선과 채용진행 완료 후 새일여성인턴지원 및 여성친화기업협약 및 무료진단 환경개선지원 등의 기업을 지원하고, 채용한 기업을 위한 사후관리로 가족친화기업 협약 및 무료 기업코칭을 통해 기업맞춤형 특강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함.

- 구체적으로는 특색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여성가족부 영화 CG제작자 양성과정, 고용노동부 경기도 지원 현장체험 투어 전문가 과정 등을 진행함.
- 또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구직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 첫 월급을 축하하는 의미로서 취업설계사가 직접 케이크를 가지고 직장에 방문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실 운영 및 무료 특강은 물론 취·창업박람회도 개최함.

□ 주요 논의사항

- 직업훈련과 관련해 분야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 본 센터에서는 회계, 그래픽 컴퓨터, 농촌체험, 공예, 창업 등 여성들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이 70여개 과정은 정부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본 센터의 직업훈련의 특징은 수료생들이 수료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점임. 또한, 여성들의 창업공간도 제공하고 있음.
- 호호마켓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짐.
 - 호호마켓은 본 센터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을 알리기 위한 페스티벌로서, 근처 공원에 부스를 만들어 여성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이루어짐. 또한, 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강의를 진행하기도 함.
- 협력기관과의 MOU 체결과 관련해, 인터넷 관련, 영화 관련, 호텔, 백화점, 대기업 등과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고, 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공유함. 그러나 본 센터의 경우,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지만, 주로 정부 예산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해 논의 함.
 - 본 센터의 직업훈련은 대부분 무료이고, 정부 80% 정도 지원, 개인

20%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이는 10% 이하라고 설명함.

- 또한, 영화 CG 제작자 과정 등 일반적으로 고가의 교육훈련으로 운영되지만, 여성들에게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관련 정부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3) [기관방문 3] 한국여성의전화

□ 기관소개 주요 내용

○ 한국여성의전화: 역사

- 한국여성의전화는 양성평등과 반 폭력을 지향하여 1983년에 시작되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회원단체로 여성 상담을 진행하며 한국최초로 컴퓨터를 개설하였고, 현재 전국에 25개 지부가 있음. 컴퓨터는 폭력피해 때문에 집을 나와야 하는 여성을 위해 만들어짐.
- 이 밖에도 여러 법 개정 특히 성폭력특별법, 성매매특별법, 가정폭력법 등 개정하였고, 현재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고 특히, 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매년 5월 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에는 여성폭력 지양을 위한 행사를 계획함.
- 또한, 10대를 위한 캠프 활동, 2006년부터는 여성인권과 폭력을 주제로 여성인권영화제를 주최하고, 전문 상담원 교육을 제공함. 교육을 통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에 중점을 두며, 그밖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평등문화 가꾸기 남성모임을 실시함.

○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 여성 상담의 목표는 첫째,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둘째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셋째 여성인권운동의 확장에 중점을 둠. 상담은 전화, 이메일, 대면상담, 법률상담으로 이루어지며, 회원활동가

36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들이 상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됨.

- 상담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감독 (supervision)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상담뿐 아니라 인권활동 지원도 하며 함께 기자회견을 하거나, 재판, 사건지원 등 결합하여 활발하게 지원함. 여성폭력 피해 당사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지원활동을 함께하며 법률, 의료, 정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함.

○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 쉼터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로 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진행함. 이 쉼터에서 상담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함.
- 특히, 심리치유캠프, 힐링캠프와 비슷한 자아여행을 여행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기획부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진행하는 형태임. 또한 미술치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개최함. 이밖에도 글쓰기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도모함.

□ 주요 논의사항

- 한국여성의전화의 운영시스템에 관하여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루어짐. 정부의 자금을 받지 않고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회원이란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금액 후원을 하는 사람을 말함. 자금을 모으는 모금 활동 뿐 아니라 한국여성의전화의 활동을 더 알리고 가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회원 확대 활동을 하고 있음.
- 참석자들이 쉼터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이루어짐.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단순히 아이들의 심리치유뿐 아니라 왜 쉼터에 갈수 밖

에 없는 상황인지 알려줌. 그 밖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 컴퓨터 사용 기간에 대하여 정보 공유 함. 해당 센터가 제공하는 컴퓨터는 단기 컴퓨터이고 보통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으며 최장 9개월까지 컴퓨터를 제공함. 그러나 수용가능인원은 총 15명임.
- 한국여성의전화가 진행하고 있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짐.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 절차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선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양육권, 가사소송 등 법률조언을 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함. 또한 병원과도 연계하여 바로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

4. 참석자 발표 세부내용

가. [참석자 발표 1] 협력국 여성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인권 정책

1) 캄보디아

- 캄보디아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 현황
 -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 참여의 정도와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취업률 및 정계 진출율을 살펴보면, 각각 여성 취업률 17.9%와 남성 취업률 26.1%이고, 여성의 정계 진출율은 20.32%로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음.
 - 2013년 기준, 세계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는 캄보디아의 전체 노동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보고했고,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는 동일년도 기준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율이 전체 79.2%라고 추정함.
 - 그러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66.3% 인 반면에 남성은 62.3%

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여성은 기술과 전문직이 아닌 노동으로 경제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 대다수의 경제 참여 여성이 가족종사자이며, 66.3%의 여성은 농업에 종사함.

- 또한 캄보디아 여성의 미미한 정계 진출율은 지난 50년간 여성이 고위관직에 오른 경우로 부총리 한 번이 전부임을 보여줌
- 2차·3차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의 수도 늘어났고, 1993년 헌법으로 제정된 캄보디아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법은 국내 여성의 경제참여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정부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에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을 담당하는 팀을 꾸려 관련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정책 내 성 주류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여성들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의 다섯 가지 전략이 있고(아래 내용 참고), 이는 여성대상의 직업훈련, 개발기구와의 파트너십, 민관협력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음.
 - ①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 ② 여성의 경제참여기회 향상 및 직장환경 개선
 - ③ 여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 수의 증대
 - ④ 가난한 여성의 삶의 질 개선
 - ⑤ 이주노동으로 인한 여성들의 기회 확대 및 피해 축소
- 하지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한계가 있고, 여성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관련 기관이나 부처들의 협업 및 민관 협력이 아직 원활하지 못한 실태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부처의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 여성인권 정책 현황

- 2015년에 실시된 여성의 건강과 생애 경험에 대한 국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애경험이 있는 15-64세 사이의 여성 중 20%는 파트너에 의해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4분의 3은 매우 심한 정도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함. 이처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농촌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이 외에 설문조사에서도 캄보디아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현실임.

-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 정책은 총 5가지로 정리됨. ① 사각전략 - III단계, ② 국가전략개발계획(2014-2018), ③ 캄보디아 여성부(MOWA) 5개년계획, ④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국가기본계획(2014-2018), ⑤ 안전한 촌(village)/면(commune)/동(sangkat)을 위한 개발계획(2010)이 있으며, 각 정부 정책은 양성평등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정책에 따라 분야가 조금씩 다름.
- 이러한 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법적 대응이 부족함.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도와 법이 현실반영이 잘 안 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과 강화가 필요함.

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는 가부장적 사회로서 전반적으로 남녀차별이 만연한 국가임.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정치 참여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총 555명의 국회의원 중의 95명이 여성으로 선출되는 성과가 있음.
 -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노동인구는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대기업이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적음.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경제기업의 98%가 소기업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약 25%를 책임진다고 볼 수 있음.
 - 70~80%의 여성인력이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8년에 제정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은 국내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활용됨.
 - 여성들의 경제권 보장은 물론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정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함.
 - 인도네시아에는 소기업 종사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

HIPMIKINDO와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IKAPPEI가 있음. 이 두 기관은 정부의 여성역량강화부(KPP-PA)와 다른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인력개발, 교육, 자금에 대한 접근성 향상, 시장 접근성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관련부처간의 네트워크 향상, 관련분야 연구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마약 문제 해결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 인도네시아 여성인권 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의 가부장적인 문화는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여성폭력위원회에 의하면 2015년에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통과시킨 여성 차별적인 정책은 31개임. 현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322개가 존재함.
- 1979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이 발표되고 인도네시아는 1984년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성 생식권, 양질의 삶에 대한 권리 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등과 같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함. 그러나 시민권, 보건,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보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임.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여성 정치참여율은 전 세계에서 107위로 매우 낮음.
- 여성의 권리향상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는 가부장적인 문화, 종교, 군사정권이 있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높은 지위나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고,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의 능력이 제한되었으며 군사정권에서는 여성들의 공적인 활동 참여가 불가능했음.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 경험 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 정치적 참여가 불가능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인권과 비차별주의가 핵심문제가 되어야 할 것임.

3) 미얀마

□ 미얀마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 현황

- 미얀마의 경우 유리천장(glass ceiling)보다는 끈끈한 바닥(sticky floor)이 문제이고, 현재 시장구조와 도매업에 변화가 있으며 창업에 대한 어려움은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님.
- 그러나 여성 문해율, 정규교육률, 경제참여율 등이 증가하였고, 여성 관리자의 수도 늘어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개선됨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
- 미얀마는 2013-2022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하였고, 이 전략은 고용, 경제, 자원 등에 대한 여성들의 동등한 권리를 약속하고 있는 바임.
- 아직까지도 미얀마의 남녀 임금차이는 30%나 되며,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율이 낮고 사회적, 경제적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여성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성인지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미얀마 여성인권 정책 현황

- 미얀마에는 여성문제를 위해 여성문제위원회(MNCWA), 미얀마여성조합(MWAF) 등과 같은 다양한 위원회와 조합이 있음. 현재 미얀마의 여당은 국가발전을 위한 세 개의 주요분야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양성평등 달성임. 현재 미얀마의 모든 사회적 변화는 정치적 변화와 연관되어있음. 평화를 위한 최근의 정책들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있음. 예를 들어, 정책대화에 여성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정책대화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포함함.

4) 베트남

□ 베트남 여성 경제역량 강화 정책 현황

- 베트남의 양성평등을 위한 2011-2020년도 국가전략은 총 7개 분야로 나뉘는데 그 중 여성들의 경제권 보장, 경제적 역량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전략에는 경제, 고용 등의 분야에서 성별격차를 없애고 빈곤한 농촌지역 여성 및 소수민족 여성들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함.
 - 이 외에도 노동, 여성역량강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이 존재함.
- 2011-2015년도의 전체 노동인구 중 48%가 여성이었고, 이 중 43% 이상이 초등교육을 이수한 자였으며 3개월 미만의 직업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2013년에는 여성관리자 및 경영자의 비율이 24.8%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4.8%가 증가한 수치임. 여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회경제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성인력을 보다 많이 고용하였으며, 더 나은 사회보험 및 사회책임적 정책을 적용함.
- 하지만 아직까지 베트남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는 전반적인 성평등 문제와 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지가 부족하고, 은퇴연령이나 직업교육가능연령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가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장애물이 되기도 함. 또한 보육원과 같은 지원시설 부족 문제와 여성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및 기존 제도의 검토가 필요한 실태임.

□ 베트남 여성인권 정책 현황

-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현재 베트남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 사회적으로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 관련된 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함. 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음.

- 베트남은 1982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비준하였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체 노동력에 48.7%가 여성이고,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 거의 절반이 여성임. 정치적 참여율도 꽤 높은 편으로 국회의원 중 26.8%가 여성임. 1946년 제정된 헌법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고 되어있으며, 2013년에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모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 2006년 제정된 양성평등법으로 양성평등달성을 위한 구조적 제도는 갖춰져 있음. 노동법에서도 여성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1장으로 따로 자세히 나와있음. 예를 들어 고용주는 양성평등을 위해 채용, 근무시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없이 대해야하며 국가는 여성들에게 동등한 채용기회를 주어야함. 이러한 법은 관련부처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협회 등과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함.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양성평등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남아선호사상이 심하고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가 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책입안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며 양성평등을 위한 관련부처들의 참여가 필요함.

나. [참석자 발표 2] 국가별 사업제안서

1) 캄보디아: 농업 가치 체인 개발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경제역량강화

〈표 II-5〉 캄보디아 사업제안서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농업 가치체인(value chain) 개발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경제역량 강화
사업 대상	캄보디아의 두 지역(Kampong Chhnang과 Kampong Speu)의 여성농업인과 생산자그룹
사업 목표	여성농업인의 기술적 역량 증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 강화
관련 국가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 • 여성경제역량강화전략(Women's Economic Empowerment Strategy) •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 (NAPVAW-II 2014-2018)
예산 및 기간	500,000달러/ 3년
이행주체 및 협력기관	캄보디아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요소(In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에게 기술적 훈련 제공 - 생산자그룹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상품 및 유기농 상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요소(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명의 농업인 중 약 70%의 여성의 기술 습득 및 이를 통한 농산물 수확 증대 -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하거나 닭 및 돼지를 사육하는 50명의 여성기업인 배출 및 지속가능한 생산, 이중 30%는 공동사업체의 운영 - 4개의 시장 및 생산품 판매센터 설립 및 운영

□ 사업배경 및 목적

- 농업관련 분야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고용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 경제인구의 약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의 가장 큰 고용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
- 그러나 농업이 캄보디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과일과 야채는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농업 기술 및 시장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량부족에 기인하며, 특히 이는 여성

농업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

- 또한, 농업으로 인한 수입이 충분치 않아 농촌에서 대도시로 취업을 위해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 기회가 더 적은 편임.
-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시키는 것임. 특히, 여성의 기술적 역량을 증진하여 생산을 극대화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 가공과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 또한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여성주도의 생산자 그룹을 형성하고자 함. 또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관련 국가 개발정책을 반영하여 수행됨.
 -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 상에서 농업분야가 여전히 우선순위에 임.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화, 상업화시키기 위해 국가농업전략계획이 시행중에 있음(ASDP 2014-2018).
 - “여성경제역량강화전략(Women’s Economic Empowerment Strategy)”은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특히 여성과 소녀의 직업교육에 우선순위를 둠.
 -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NAPVAW-II 2014-2018)”은 성별역할과 긍정적 태도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 본 사업은 캄보디아의 두 지역(Kampong Chhnang과 Kampong Speu)에서 여성농업인과 생산자그룹을 대상으로 함. 약 70%의 수혜자가 여성으로 구성된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최소 60%의 여성이 리더인 그룹으로 구성됨. 이 프로젝트는 젊은 여성 또한 농업에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상함.
- 투입요소(Input): 여성농업인에게 기술적 훈련을 제공하고 생산자그룹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함. 지역 상품을 생산하고 유기농 상품을 생산함. 농업인조합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험에서 배웠으며 이 조합

을 통해 정보교류를 하고 연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산출물(Output): 500명의 농업인 중 약 70%의 여성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농산품 수확을 증대시킴.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하거나 닭 및 돼지를 사육하는 50명의 여성기업인이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고 이중 30%는 공동사업체를 운영함. 4개의 시장과 생산품 센터가 설립 되어 운영됨.

□ 사업 운영방식

- 캄보디아 여성부와 시민사회,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실행함. 캄보디아의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는 국가기관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인그룹을 지원할 수 있고, 농업인 또한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음. 농업인조합과 사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성을 높이고자 함.
- 공여된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되 캄보디아 정부에서 전문성과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역할이 분담될 수 있으며, 타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조도 포함시킬 수 있음.

2) 인도네시아: 신생 영세사업 여성창업자 역량강화

〈표 II-6〉 인도네시아 사업제안서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신생 영세사업 여성창업자 역량강화
사업 대상	자카르타, 자바섬 지역의 영세 여성창업자
사업 목표	여성 창업 역량 강화
관련 국가개발전략	국가중기개발계획(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사업예산	약 865,000,000루피아(약 13,000달러)
이행주체 및 협력기관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 소규모기업가여성권한연구소(LPP-HIPMIKINDO) 및 노동부

구분	내용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Input)
	<p>자문가, 훈련시설(컴퓨터, 전문상가, 재봉틀 등), 자금, 원재료(직물, 단추, 실 등), 훈련모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물(Output)
	<p>중소기업 여성 기업가를 위한 훈련센터를 만들고, 여성들이 보다 나은 지식과 기술수준을 갖고 생산과 마케팅에 종사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물(Outcome)
	<p>여성 기업가 육성 및 질 높은 국내생산품 생산함.</p>

□ 사업배경 및 목적

-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의 수는 58,586,237개이고 그 중에서 98%는 영세한 규모의 회사임. 이러한 영세한 규모의 사업(micro enterprise)과 소기업(small enterprise)의 차이 역시 매우 큰데, 영세기업은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금융자원에 대한 기회, 시장에 대한 기회,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센터가 필요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여성 영세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훈련센터를 만들어 2년 미만의 여성 창업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시장에서 여성의 참여증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것임.
- 본 사업은 “국가중기개발계획(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을 반영하여 수립됨.
 - 인도네시아 “국가중기개발계획(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성 주류화 이행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8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자카르타와 자바섬 지역의 영세규모 여성창업자와 가내수공업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함.
- 투입요소(Input): 자문가, 훈련시설(컴퓨터, 전문강사, 재봉틀 등), 자금, 원재료(직물, 단추, 실 등), 훈련모듈이 있음.
- 산출물(Output) 및 성과(Outcome)
 - 산출물(Output): 중소기업 여성 기업가를 위한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여성들이 보다 나은 지식과 기술수준을 갖고 생산과 마케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결과물(Outcome): 숙련된 여성 기업가를 육성하고 높은 수준의 국내생산품을 생산함. 인도네시아의 경우 생산 지역과 생산자에 따라 같은 상품이라도 질이 다른데, 생산 공정을 정형화함으로써 편차를 줄이고자 함.

□ 사업 운영방식

-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와 여성권한아동보호부와 자카르타와 자바섬 서부지역 노동부의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됨.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가 운영을 맡고, 실제적 이행은 소규모 기업가여성권한연구소(LPP HIPMIKINDO)가 진행함.
- 법률적으로 사회기구관련법 (1985년 제정 법령 5항), 정부 규제법 (1986년 제정 법령 18항), 가족부 관련제도(1986년 제정 법령 5항), 가족부 관련 명령(1990년 제정 법령 8항)에 기반하여 사업을 운영함.

3) 미얀마: 다분야협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

〈표 II-7〉 미얀마 사업제안서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다분야협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
사업 대상	미얀마 Bago지역의 4개 촌의 10개 마을 중 산림의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사업 목표	여성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존 강화
관련 국가개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국가개발계획 • 유관 부처의 5개년 전략계획
사업 예산	100,000달러
이행주체 및 협력기관	천연자원환경개발부(MONREC), 사회복지구호정착부(MOSWRR), MOI, CSO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In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개발훈련 및 교육물품 제공 - 국내외 기술전문가 및 지역사회전문가, 관련 부처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협력미팅 개최 - 외부환경보존 및 학교에서 어린이의 나무심기 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존 교육을 받는 학교의 수 증가 - 산림면적의 증가 - 친환경물품 생산에 참여하는 여성의 증대

□ 사업배경 및 목적

- 미얀마는 홍수, 태풍, 지진,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를 ‘골드랜드(goldland)’에서 ‘그린랜드(greenland)’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중임.
- 본 사업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존에 있어 다각적인 협력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산림의존지역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양성평등 강화, 교육과 고용의 촉진과 자립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사업은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과 관련 부처의 “5개년 전략계획”에 기반하여 작성됨.



50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사업내용

- 사업대상: 미얀마 Bago지역의 4개 촌의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의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함.
- 투입요소(Input): 역량개발훈련, 국내외 기술전문가, 트레이너, 교육물품, 외부환경보존, 산림 전문가의 교육 토크, 학교에서 어린이의 나무심기 활동, 직업훈련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전문가, 관련 부처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협력 회의가 포함되어 있음.
- 산출물(Output): 환경보존 교육을 받는 학교의 수, 산림면적의 증가, 친환경물품 생산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 증가가 산출물임.

□ 사업 운영방식

- 천연자원환경개발부(MONREC), 사회복지구호정착부(MOSWRR), MOI, CSO가 협력하여 진행함. 산림법에 따라서, 지역의 소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30년 동안 임야 임대를 진행하고, 천연자원환경개발부와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부의 여성직업훈련 및 천연자원환경개발부의 각 지역학교와 컨설팅을 통해 지속성을 제공하고자 함.
- 공여기관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 미얀마의 지리적, 인구학적 통계, 트레이너, 시설설비와 프로젝트 배경에 대한 조사는 미얀마 정부가 진행할 수 있음.
- Center for People and Forests(RECOFTC)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의 해당 기관 사업인 SuComFor(Scaling up Community Forestry)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함.

4) 베트남: 하노이 Thach That 지역의 Binh Yen 공동체 Linh Son 마을의 청정농작물 재배를 위한 여성의 의사결정능력 강화

〈표 II-8〉 베트남 사업제안서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하노이 Thach That 지역의 Binh Yen 공동체 Linh Son 마을의 청정농작물 재배를 위한 여성의 의사결정능력 강화
사업 대상	채소 재배하는 여성, 가족, 공급자, 소비자
사업 목표	농작물 재배에 여성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관련 국가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 개발 계획 달성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전략 • 인적자원개발전략
사업 예산 및 기간	500,000 달러/ 3년
이행주체 및 협력기관	투자계획부, 노동부, 문화스포츠관광부, 베트남여성연맹, CSAGA, 한국의 전문가, 마을관계자, 마을의 여성과 가족구성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In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함. - 여성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농업 관련 기관, 공급자, 통신기관,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함. - 공급망의 설립: 마을에 전시관을 만들고 Bai Da 시장에 여러 가게를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물(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역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모든 여성이 청정야채의 공급망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함. - 주요 시장중 하나인 Bai Da 시장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교류를 위한 4개의 이벤트 진행함. - 의사소통 및 교류를 위해 결과물이 발간되어 대중에 보급하고 이는 향후 홈페이지 구축도 포함함.

□ 사업배경 및 목적

-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하노이에서 안전한 음식을 구입하기는 매우 어렵고 식품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하노이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자재는 대형마켓에서만 구매가 가능함. 즉, 채소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오염된 물과 독성 화학품의 사용으로 인해 농작물이 오염되었음.

52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채소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약하고, 농작물 재배에 따른 지식이 부족한 바,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채소를 재배하여 하노이에 안전한 농산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본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 1, 3, 5, 10, 12, 13, 15를 달성하고 농작물 재배에 여성의 의사결정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며,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 그 규모를 점차 확장하여 큰 시장으로 확장해나갈 예정임.
- 본 사업은 베트남의 “사회경제 개발 계획 달성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전략” 및 “인적자원개발전략”과 관련이 있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채소를 재배하는 여성과 가족, 공급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
- 투입요소(Input): 기초조사의 실시, 관리와 평가 시스템의 개발, 여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 진행을 위해 농업 관련 기관, 공급자, 통신기관,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력, 마을에 전시관을 만들고 Bai Da 시장에 여러 가게를 만들어 공급망 구축
- 산출물(Output): 대상지역 채소재배 여성이 청정야채의 공급망에 대한 교육훈련 수료, 주요 시장중 하나인 Bai Da 시장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교류를 위한 4개 이벤트 진행, 의사소통 및 교류를 위한 결과물 발간 및 향후 홈페이지 구축

□ 사업 운영방식

- 베트남 투자계획부, 노동보훈부, 문화스포츠관광부, 베트남여성연맹, CSAGA과 함께, 한국의 전문가, 마을관계자, 마을의 여성과 가족구성원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청정채소의 브랜드 명을 붙여 지속성을 높이고 로컬상품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 공여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동시에, 베트남은 관계와 같은

시설설비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특히, 한국의 여성들을 초청하여 발전경험에 대한 지식공유를 원함.

5. SSAGE 워크숍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가. 참석자 사전-사후 자기평가 결과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여성관련 이슈 및 정치에 관한 관심, 젠더에 관한 이해도, 개인 직무에서의 젠더관점 반영, 젠더 이슈의 실제적 이행 방법에 대한 지식, 개인직무와 젠더 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 젠더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 경험 및 의사, 여성이슈 및 여성정책에 대한 학습경험 및 의지, 한국 및 본원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 참석자 간 네트워크 지속 여부 및 의지에 대한 워크숍 사전/사후 자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여성관련 이슈 및 정책에 관한 관심도, 젠더에 관한 이해도, 젠더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 경험 및 의사, 젠더 관련 업무 추진 경험 및 의사, 여성이슈 및 여성정책에 대한 학습 경험 및 의지, 한국 및 본원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 참석자 간 네트워크 지속 여부 및 의지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음.
- 참석자 간 네트워크 지속 여부 및 의지, 한국 및 본원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 젠더에 관한 이해도, 젠더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 경험 및 의사 순으로 유의미하면서도 높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표 II-9〉 참석자 사전-사후 자기평가

문제항목	기준	평균 (표준편차)		사전-사후 차이
		사전	사후	
여성관련 이슈 및 정책에 관한 관심도		4.26 (0.75)	4.57 (0.59)	0.30*
젠더에 관한 이해도		3.65 (0.71)	4.26 (0.69)	0.60**
개인직무에서의 젠더관점 반영		4.09 (0.67)	4.39 (0.58)	0.30
젠더이슈의 실제적 이행방법에 대한 지식		2.91 (1.08)	3.30 (1.18)	0.39
개인 직무와 젠더 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		4.22 (0.67)	4.35 (0.65)	0.13
젠더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 경험 및 의사		3.91 (0.87)	4.32 (0.72)	0.41*
젠더 관련 업무 추진 경험 및 의사		3.82 (0.73)	4.18 (0.66)	0.36*
여성이슈 및 여성정책에 대한 학습 경험 및 의지		3.78 (0.90)	4.43 (0.51)	0.65**
한국 및 본원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		3.74 (0.92)	4.52 (0.51)	0.78**
참석자 간 네트워크 지속 여부 및 의지		3.65 (1.03)	4.65 (0.49)	1.0**
총 평균 (표준편차)		3.82 (0.42)	4.22 (0.42)	0.40

* p < 0.05, ** p < 0.01

나. 참석자들의 워크숍 평가 결과

1) 정량적 평가

- 참석자 대상 설문을 통해 본 SSAGE 워크숍은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프로그램 만족도, 성취도 및 영향력, 지속필요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평균 4.0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음.
 - 워크숍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을 두루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특히, 워크숍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시간의 적절성에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참석자들은 짧은 기간 동안 너무タイト한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한 바 있음.
 -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강의와 기관방문을 비교했을 때, 참석자들은 강의보다 기관방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음. 실제로 일부 참석자들은 향후 기관방문, 특히, 실제적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및 지역 차원의 현장학습 필요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음.
 - 한편, 프로그램 만족도 중에서 참석자 워크테이블 및 참석자 발표 2세션에 대한 문항의 경우 점수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정이 너무タイト하다보니 토론 및 조별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한 아쉬움에 기인한다고 보임.
 - 성취도 및 영향력 면에서도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참석자 간 네트워크 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즉, 본 워크숍이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국 내, 그리고 협력국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짐.
 - 지속 필요성 면에서도 참석자들은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따라서 향후에도 본 워크숍의 지속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II-10〉 워크숍 전체평가

문제항목		값	평균 (표준편차)
타당성	시간의 적절성		4.04 (0.55)
	프로그램 주제와 개인 직무와의 연관성		4.25 (0.61)
	프로그램 전체 구성과 목적과의 연결성		4.21 (0.51)
효과성	프로그램의 유용성		4.33 (0.48)
	교육자료의 효과성		4.38 (0.49)
	교육 기자재 작동의 원활성		4.50 (0.51)
효율성	워크숍의 효율적 운영		4.46 (0.51)
	워크숍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4.46 (0.59)
	워크숍 기간 동안의 안내		4.52 (0.51)
	워크숍 진행요원들의 역할 수행		4.67 (0.48)
체계성	워크숍 진행장소 만족도: 본원		4.58 (0.50)
	워크숍 진행장소 만족도: 외부호텔		4.54 (0.59)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		4.52 (0.51)
	식사 및 간식 제공에 대한 만족도		4.29 (0.69)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4.38 (0.65)

문제항목		값	평균 (표준편차)
프로그램 만족도	강의에 대한 만족도		4.25 (0.61)
	기관 방문에 대한 만족도		4.38 (0.65)
	협력국 위탁연구 세미나 세션에 대한 만족도		4.13 (0.68)
	[참석자 워크테이블]에 대한 만족도		4.00 (0.78)
	[참석자 발표 2] 국가별 사업제안서 발표에 대한 만족도		4.08 (0.78)
성취도 및 영향력	워크숍의 개인 역량강화 기여도		4.42 (0.50)
	개인의 목표 달성		4.33 (0.48)
	워크숍 내용의 업무 적용 가능성		4.33 (0.48)
	참석자 간 네트워크 구축		4.46 (0.51)
지속 필요성	워크숍 참가 추천 의향		4.54 (0.72)
	지속필요성		4.58 (0.50)
총 평균 (표준편차)			4.28 (0.39)

2) 정성적 평가 결과

- 피드백 세션 및 설문지 상 코멘트를 통해 참석자들은 SSAGE 워크숍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의 여성정책 문제를 해결을 위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한 참석자는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이 협력

국의 ‘영감(inspiration)’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앞서 [참석자 발표 2]의 내용에서 살펴본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사업제안서의 경우, 기관방문과 강의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함.

“(인도네시아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중) 개인적으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여성 직업교육 훈련센터와 관련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인도네시아 발표자)

“(캄보디아 여성 농업인 경제역량 강화 사업제안서 내용 발표 중) 사업제안서에 포함하고 있는 농업인 조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한국의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강의에서 배운 것으로, 조합을 잘 활용해 정보교류와 연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캄보디아 발표자)

- 본 워크숍은 한국뿐만 아니라, 4개 협력국 간 정책에 대한 상호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 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소개와 협력국 위탁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도 참석자들이 현지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공유한 바 있음.
- 사전-사후 자기평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참석자들 간 네트워크 형성에 본 워크숍이 큰 기여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속·활성화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향후에도 워크숍의 내용적 구성뿐만 아니라, 현지의 여성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참석자 구성 및 프로그램 구성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현지 NGO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것 역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 몇몇 참석자를 통해 지적되었음.
- 상기의 정량적 평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의보다는 생생한 현장학습 및 기관방문에 대한 참석자들의 호응이 더 높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함. 실제로 몇몇 참석자들은 기관방문을 좀 더 늘리고, 특히, 실제적 사업의 실행 차원의 지식공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KOICA

실무자 등의 참여가 필요함 역시 지적되었음.

- 기타 사항으로는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 개괄에 대한 강의 포함 필요성, 참석대상에 따른 일정의 구성을 통한 여유 있는 일정 구성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향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향후 SSAGE 워크숍 운영에 대한 시사점

- 상기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성공적 정책컨설팅의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현지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소화시키고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음.
 - 이번 워크숍이 여성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인권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좁혀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보다 충분한 토론 시간 확보와 여유있는 일정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초점을 맞춘 주제를 선정해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이를 협력국 현지의 상황에 비추어 적용해볼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좀 더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단순히 한국의 여성정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해 실제 해당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 대한 시간을 좀 더 할애할 필요가 있음. 앞선 평가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의보다는 기관방문에 참석자들이 더 좋은 평가를 하는 편이고, 더 나아가 정책의 구체적 이행과정에 대해 좀 더 학습하고자 하는 니즈가 존재함.
- 본 워크숍이 단순히 일회성 역량강화 초청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한국과 협력국 간 여성정책 분야의 실제적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60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본 워크숍을 통해서 구축된 네트워크가 현지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가운데, 워크숍 참석자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화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4개 협력국 간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여성 인권의 경우,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과 상관없이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주제로 할 때보다는 여성인권과 같은 주제를 다룰 때, 4개 협력국 참석자들이 함께 현지의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남남협력이 기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국가별로 편차가 큰 주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별로 보다 세부적인 주제에 맞춘 워크숍 운영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주제별로 현지의 정책 거버넌스를 감안한 참석자의 구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지 여성정책 전담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각 이슈별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 각 국가의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참석자 대상의 직급에 따라서도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낮은 직급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좀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반면, 고위급 참석자가 대상일 경우에는 오랜 기간 해외 파견이 불가하므로 짧은 기간 동안 보다 집중적인 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듯함.

- 마지막으로 언어의 문제 역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임. 협력국에서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효과적인 통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의 강사인력에 대한 역량개발을 통해 현지 언어로 강의가 가능한 강사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시사됨.

6. 현지 여성정책 수요 및 향후 협력 시 고려요소

가. 현지 여성정책 수요의 특징

-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와 관련해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국가의 발전단계 및 정책수요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의 경우,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최근의 2차·3차 산업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발맞춘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기 보다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내지는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고용 보다는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의 경우, 경제발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걸음마 단계이며, 토지소유권 등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적 국가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과 사회보험, 은퇴연령 등 비교적 한발 앞선 여성정책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 반면,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이 대동소이한 정책이슈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거의 모든 국가가 여성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가 기 구축되고 있거나, 현재 구축 노력 중이나 이행 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관련 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여성인권 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남남협력

이 더욱 요청되는 분야라고 생각됨.

나. 향후 젠더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시사점 및 고려사항

-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이 개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통해서도 향후 협력 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 및 고려사항을 도출할 수 있음.
 - 우선, 각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사회 발전상황과 여성정책 이슈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적 개입이 요청됨.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베트남의 사업제안서를 비교해 보면, 두 사업제안서 모두 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정책적 개입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판매 센터 구축 등을 통한 기초적인 판로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 청정채소 재배와 브랜드화라는 보다 기술적 전문성이 요청되는 정책적 개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로, 모든 사업제안서가 단일 부처 혹은 단일 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의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은 특기할만함. 국가별로, 사업주제별로 협력기관이 상이하겠으나, 이는 분명 향후 현지의 여성대상 혹은 성 주류화 사업 추진 시에 현지의 여성 전담부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현지 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젠더는 범분야적 이슈이기 때문에 젠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현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특히 더 강조되어야 하며, 외부의 원조나 지원만으로는 아태지역 현지의 여성지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따라서 향후 젠더분야 개발협력 추진에 있어 내부적 동력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본원 워크숍 참석자 구성 및 그 외 젠더분야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참고되어야 할 것임.
 - 셋째로,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역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미얀마 사업제안서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 하나인 기후변화

II.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63

이슈에 많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고, 베트남 제안서의 경우, 사업의 목표를 SDG 목표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 역시 공여국으로서 젠더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적 개발협력 목표인 SDG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1. 사업배경 및 목적	67
2. 2016년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와 운영방식	69
3.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세부내용	75
4. 성과 및 제언	100



1. 사업배경 및 목적

가. 협력국 위탁연구

- 개도국 내 여성 지위 및 정책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와 이를 위한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현지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초자료의 미흡은 현지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협력국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협력국 위탁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음.

〈표 Ⅲ-1〉 2014~2016년 협력국 위탁연구 주제 및 협력기관

국가	연도	주제	협력기관
캄보디아	2014	캄보디아의 양성평등 분야 정책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아시아재단 캄보디아 사무소 (Asia Foundation)
	2015	여성정책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RUPP의 젠더관련 연구 및 강의 역량강화 도전과제 연구	프놈펜 왕립대학교 (RUPP)
	2016	캄보디아 여성의 농촌 경제개발 참여	Life with Dignity Learning Center (LWD-LC)
인도네시아	2014	2014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여성후보에 대한 인식 조사	인도네시아대학 정치연구소(PUSKAPOL)
	2015	2019년 총선 대비 의회내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 및 도전과제 연구	인도네시아 선거 및 민주주의연합 (Association for Elections and Democracy, PERLUDEM)
	2016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2019년 총선을 위한 정당의 차별철폐 정책	인도네시아 여성연구원 (WRI)
미얀마	2015	미얀마 카얀족 5세이하 남녀 아동 영양상태에서의 성 격차 실태 연구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Simon Fraser University)
	2016	미얀마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소액금융 서비스	미얀마 기업인 간부연합 (MBE)
베트남	2014	베트남 여성 직업훈련 정책과 현황 조사	베트남노동사회연구소(ILSSA)
	2015	베트남 산업공단내 이주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실태 연구	베트남노동사회연구소(ILSSA)
	2016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여성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베트남노동사회연구소 (ILSSA)

68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본 연구사업은 현지 기관과의 위탁연구라는 협력채널을 통해 협력국 내 주요 정책분야에서의 여성지위 현황과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지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현지의 증거 및 자료에 기반한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동시에 향후 한국이 양성평등 분야 ODA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현지의 여성 지위 및 정책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함.

나. 국제기구 위탁연구

- 국제기구 위탁연구는 사업은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도국 현지의 기초연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적/아태지역적 차원의 양성평등 분야의 거시적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2013년도부터 UNESCO 방콕사무소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와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글로벌 젠더 이슈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오고 있음.

〈표 Ⅲ-2〉 2013~2016년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

연도	연구주제	위탁기관
2013	Gender, Jobs and Education: Prospect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성, 직업, 그리고 교육: 아시아태평양 현황 및 전망)	UNESCO 방콕사무소
2014	A Complex Formula : Women in Mathematics and Science - From Learning Achievement to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수학·과학 고등교육 진학과정에서의 성 격차)	UNESCO 방콕사무소
2015	Enhancing Women's and Girl's Safety and Mobility in Public Spaces: Review of Evidence and Lessons Learned from Selected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 젠더혁신적인 도시 및 공동체 구축을 통한 여성 및 여아의 안전 보장: 주요 환경에서의 정책 및 교훈 분석)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2016	Knowledge and Evidence Creation: Baseline Publication on SDGs, Goal 5 and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Asia Pacific (아태지역에서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SDGs 5번, 양성평등 지표 기초선 연구)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 이러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현지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국제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현지의 여성정책 발전 및 양성평등 ODA 사업의 발전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

2. 2016년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와 운영방식

가. 2016년 협력국 위탁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 협력국 위탁연구 개요
 - 금년도 위탁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의 경제참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국가별 협력 연구기관과 연구주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Ⅲ-3〉 2016 협력국 위탁연구 개요: 연구주제, 협력기관, 연구 내용 및 방법

국가명	분류	내용
캄보디아	연구주제	캄보디아 여성의 농촌 경제개발 참여 (Women's Participation in Rural Economic Development in Cambodia)
	협력기관	캄보디아 Life with Dignity Learning Center (LWD-LC)
	연구내용	캄보디아 여성의 농촌개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캄보디아 여성의 생활여건을 살피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지위향상을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한 연구
	연구방법	·구조적 접근: 연구 목적, 선별된 샘플, 조사대상 질문 작성 ·비구조적 접근: i 데이터분석: 캄pong스푸(Kampong Speu) 지역의 10개 시범마을의 데이터 수집과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 인터뷰 진행 ii 문헌조사: 지역사회의 상황과 사회경제적 이해를 위해 문헌조사 실시
인도네시아	연구주제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2019년 총선을 위한 정당의 차별철폐 정책 (Indonesia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ffirmative Action Policy of Political Parties for the Upcoming 2019 Election)
	협력기관	인도네시아 여성연구원 (Women Research Institute, WRI)

70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국가명	분류	내용
	연구내용	2019년 총선에서 더 많은 여성 당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정당의 여성할당제와 그 보완사항에 대한 연구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정당의 여성할당제 정책 및 규제, 정당내 여성당원현황 관련 데이터수집 ·초점집단좌담회: 총 35명으로 구성된 여성당원 중심으로 좌담회 개최 ·심층인터뷰: 3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점 파악
미얀마	연구주제	미얀마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소액금융 서비스 (Microfinance Services for Rural Women, from Gender Perspective: A Case Study on Myanmar)
	협력기관	미얀마 기업인 간부연합 Myanmar Business Executives Association (MBE)
	연구내용	농촌여성에 대하여 소액대출 서비스의 영향을 평가하고 소액대출의 활용성 및 방향성에 대해 젠더관점에서 연구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적 분석: 소액대출 수혜자들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횡단분석 유사실험 통계 (cross sectional quasi-experiment design) 진행 ·정성적 분석: 소액대출 여성 수혜자들의 성공담을 인터뷰를 통해 수집
베트남	연구주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여성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ituation and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emale Human Resource when Vietnam Joins Free Trade Agreements)
	협력기관	베트남노동사회연구소 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
	연구내용	베트남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현 베트남의 여성인력양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검토하고 인력 및 양성평등 관련 FTA 규정을 검토하여 2016~2025년 베트남 여성인력양성의 도전, 기회, 위협요소를 분석하여 베트남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연구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인력개발, 양성평등과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및 학술 자료 수집 ·통계분석: 여성인력 및 여성인력양성에 관한 통계분석 실시 ·초점집단좌담회 및 심층면접: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전문가자문: 2016-2025 베트남 여성인력 개발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협력국 위탁연구 추진일정 및 운영방식



[그림 Ⅲ-1] 협력국 위탁연구 전체 추진일정

- 4개 협력국 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 주제 논의(2016년 2월)
 - 기존 공동연구 진행 기관, 국제 워크숍 또는 컨퍼런스 참석을 통하여 축적된 국제 연구기관 네트워크 및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탁 연구기관 선정이 이루어짐.
 - 2016년 2월 초 본원 연구진 회의에서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의 경제참여를 올해 연구 대주제로 선정함.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주제에 대하여 조율함.
- 연구제안서 작성 및 계약 체결 (2016년 3월)
 - 각 연구기관에 영문 집필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여 연구보고서의 질을 담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함. 집필 가이드라인은 연구 목적, 연구일정, 분량, 지적재산권 소유기관 등을 명시하였음.

- 중간보고 (2016년 8월)
 - 금년도에는 중간보고 단계인 Progress Report 작성에 대한 요청을 추가하여 위탁연구의 질을 담보함. 연구기간 중반부에 현지 연구자가 연구 진행 및 현지 조사상황에 대하여 5페이지 분량의 짧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본원 연구진에게 송부하였음. 이를 토대로 본원 연구진이 현지 연구 진행상황 및 연구방법의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시 본원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여 연구의 완성도 향상을 도모함.
- 보고서 초안 외부 자문 및 수정 (2016년 9월)
 -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분야 전문가 1인을 추천받아 1차 보고서 초안에 대한 외부 자문을 진행함. 이와 별도로 2016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SSAGE 협력국 위탁연구 세미나 참가자 중 같은 국가 유관부처 관계자 1인에게 보고서의 자문을 의뢰함. 이후 위탁연구 기관에게 자문내역이 최종 연구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게 수정을 요청함.

나. 국제기구와의 위탁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
 -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젠더가 대두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양성평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젠더지표는 부재한 실정임.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년에는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SDGs 하에서 양성평등 목표(SDG 5)의 달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안)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Knowledge and Evidence Creation: Baseline Publication on SDGs, Goal 5 and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Asia Pacific”, 이하 SDG 기초선 연구)를 2개년에 걸쳐 수행하기로 함.
 - SDG 기초선 연구의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본원 간 협력으로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SDG Baseline Publication: Evidence-based Policy Advocacy for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73

Gender Equality and Localisation of the SDGs in Asia and the Pacific」(이하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을 개최하여, 연구의 중간결과 및 데이터에 대한 아태지역 여성정책 유관부처 젠더 및 젠더 통계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 2차년도인 2017년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절차가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 및 본원 차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2017년 6월 최종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Ⅲ-4〉 2016 국제기구 위탁연구 개요: 연구주제, 협력기관, 연구 내용 및 방법

구분	내용
연구주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하에서 양성평등 목표(SDG 5)의 달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안)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 (Knowledge and Evidence Creation: Baseline Publication on SDGs, Goal 5 and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Asia Pacific)
협력기관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연구내용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양성평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젠더지표가 부재한 상태임.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는 SDGs 달성 진척도를 측정하고 개선을 요하는 분야를 밝혀낼 SDG 기초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화 단계: SDG 5번 목표 및 지표들을 확인하고 주요 SDG 목표 중 젠더 관련 지표를 연결하고 SDG 기초선 연구에서 다룰 지표 목록 선정 · 데이터 작성 단계: 각 국가의 기존 데이터와 주기적, 적시성 데이터를 SDGs에서 젠더 관련 지표들과 연결하여 현 상황을 파악 · 분석단계: 정책 제안을 위해 프레임워크의 분석과 함께 부족한 데이터 확인 · 자문회의 개최: 협력연구의 활용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중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개 지역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22개국의 통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역자문회의를 개최, 통계지표의 정확성을 강화함.

□ 국제기구 위탁연구 추진일정 및 운영방식

2016년 3월	•국제기구 섭외 및 연구 주제 논의
2016년 6월	•연구제안서 작성 •연구심의 상정 및 계약 체결
2016년 6월 ~10월	•연구 착수 (데이터 매핑, 검토 및 분석)
2016년 11월	•본원 연구진 UN Women 아태사무소 파견을 통한 피드백 제공 (2016. 11. 7. - 11. 11.)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개최 (2016. 11. 15. - 11. 17./ 태국 방콕)
2017년 2월~ 5월	• 연구보고서 최종본 완성 • 연구보고서 최종본에 대한 검토 및 마무리
2017년 6월	•보고서 발간 (예정)

[그림 Ⅲ-2] 국제기구 위탁연구 추진일정

- 국제기구 선정 및 연구 주제 논의 (2016년 3월)
 -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위탁연구를 통해 본원과 협력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위탁연구를 통한 협력을 지속해 가기로 합의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젠더지표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배경 속에서, 양 기관은 젠더지표 개발을 위한 SDG 기초선 연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함.
- 연구제안서 작성 및 계약체결 (2016년 6월)
 - 2개년 연구로 진행되는 본 위탁연구는 2017년도에 연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발간될 예정이지만, 2016년도에 중간결과를 본원과 공유하고 본원 연구자를 파견하고, 본원이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를 공동 개최 및 참여함으로써 본원이 연구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담보하고자 함.

- 본원 연구진의 UN Women 파견 및 SDG 기초선 자문회의 개최 및 참여 (2016년 11월)
 - 본원 연구자를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에 약 1주 간(2016. 11. 7. - 11. 11.) 파견하여 연구의 중간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구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본원 간 협력으로 개최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2016. 11. 15. - 11. 17.)에서는 연구의 중간 결과에 대한 아태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본원 연구진 역시 이 회의에 연구의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함.
- 향후 계획: 연구보고서 최종본 완성 및 검토, 발간 (현재~2017년 6월)
 - 2017년도에는 연구보고서 최종본에 대한 집필과 함께,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및 본원 차원에서의 최종 검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2017년 6월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세부내용

가. 협력국 위탁연구 세부내용

1) [캄보디아] 캄보디아 여성의 농촌 경제개발 참여 (Women's Participation in Rural Economic Development in Cambodia)

- 캄보디아 여성의 농촌 경제개발 참여 연구 소개
 - 본 연구는 캄보디아 농촌 여성의 경제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캄보디아 캄퐁스푸(Kampong Speu) 지역의 10개 시범 마을 내 여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필수 전략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참여, 직장, 보건, 폭력, 교육 및 정치참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농촌 여성의 경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을 검토하였음.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여성의 지위와 여성 관련 정책의 격차를 파악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캄풍스푸(Kampong Speu) 지역 내 위치한 10개 마을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구조적, 비구조적 연구를 진행함. 캄풍스푸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캄보디아의 8개 구역(province) 중 출산율, 사망률, 빈곤률이 높은 반면 여성의 문맹율이 높고 LWD-LC 사업의 대상인 지역 중 가장 빈곤한 지역이기 때문임.

〈표 Ⅲ-5〉 연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10개 마을

No	Province	District	Commune	Villages
1	Kampong Speu	Thpong	Rong Roeung	Keammoni
				Trapeang Trabaek
				Tuek Long Mouy
				Roleang Thlaeung
				Chambak Sar
			Prambie Mom	Taing Po
				Chambok Thom
				Daun Tep
				Thbeng Prochab
				Trapaing Troak
Total	Province=1	District=1	Commune=2	Village=10

〈표 Ⅲ-6〉 표본 크기

모집단	표본 크기
마을 이장/ 지방의회/지역공무원/여성리더	15 (3명의 여성포함)
남녀 마을주민	10개 마을의 여성 81명 남성 38명
가정 조사 (각 마을 인구의 10%를 인터뷰)	10개 마을의 191명 여성

- 구조적 접근으로는 연구 진행과정을 이루는 요소들, 즉 연구 목적, 선별된 샘플, 조사대상에게 질문할 질문사항 등을 결정하였고, 비구조적 접근으로 주요 응답자들, 지역 관계자, 지역사회 대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며 동시에 선별된 마을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조사가 진행되었음.

□ 캄보디아 여성의 사회경제적 현주소

○ 여성의 경제참여 및 역할

- 캄보디아 인구의 83%정도가 고용상태이며 남성(88%)이 여성(78%)보다 더 많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농촌의 남성(89%)이 농촌의 여성(80%)보다 경제활동을 많이 하며, 농촌여성은 도시여성(71%)보다 경제생활에 더 많이 참여함. 그러나 63%의 농촌여성은 농업이나 단순노동에 종사하여 정부는 이 차이를 줄이고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경제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캄보디아에서 농업이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느린 편임. 농촌여성들은 생산적, 비생산적 활동에 모두 참여하지만 여성의 토지나 자원, 농기구에 대한 접근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여성의 보건, 폭력, 교육 및 정치참여

- 캄보디아 농가의 약 9%만이 가정내 파이프를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한된 식수로 인하여 여성에게 영양실조가 많이 발

생함.

- 농촌지역 인구(15.5%)가 도시지역 인구(9-13%) 보다 더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 여성 3명중 1명은 보건시설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며, 21%여성은 진료를 받기 위해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여성 5명중 1명이 폭력을 겪은 적이 있으며 30%이상의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감정적 폭력을 겪은 적이 있음. 이에 반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법적 서비스는 미비한 상태임.
- 교육 분야에서 성별차이는 줄어들었으나, 성별, 연령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함.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아의 교육기회는 줄어들고 여학생의 문맹률이 높으며, 고학년일수록 남녀의 교육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또한 가난, 가정폭력, 부정적인 문화요인이 소녀들의 학교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정치와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게 나타남. 여성의 정치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관리와 평가 체계를 마련하였고, 정책적 지원과 법 개정을 하고 있음. 그밖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특히 젊은 여성이 교육의 현장을 통해 리더로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음.

□ 이 연구를 위해 선정된 캄보디아 10개 마을 내 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

○ 여성의 경제참여 및 역할

- 응답자의 67%는 자영업, 또는 가내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음. 응답자의 대다수는 마을 내 농업을 통한 수입이 부족하여 인근지역으로 이주하여 사탕수수/고무 재배,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음. 대부분의 여성은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저임금의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음. 젊은 여성(18~35세)은 주중에는 근교 대도시의 의류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마을의 농사일을 돕고 있음.
- 여성응답자의 81%는 소비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만, 경력선택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79

에 있어서는 33%만이 주도적인 결정권이 있으며, 56%는 배우자와 함께 의사결정을 함. 농업활동이나 소액대출의 경우 남성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부부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성이 가정폭력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결과 약 92%의 응답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67%의 응답자는 1~3헥타르, 26%의 응답자는 1헥타르 미만, 11%의 응답자는 3~5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농지소유자의 농사일을 도움으로써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경우 지역 이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응답자들은 또한 인근지역 농민과 사탕수수공장 간의 갈등을 목격하고 기업과 주민 간 토지분쟁을 우려함.
 - 여성은 주로 비숙련공으로 일하며 낮은 교육수준과 시장정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스킬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또한 농촌 여성은 이 지역의 낮은 미용 기술 수요로 인해 기술을 습득하더라도 의류공장 같은 관련이 없는 곳에 종사하고 있음. 또한 젠더에 따른 의사결정차이도 여성의 사회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즉, 직업교육을 받더라도 배우자의 반대에 의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여성의 보건, 폭력, 교육 및 정치참여
- 10개 마을 중 2개 마을에만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고, 전체 응답자 중 13%는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또한 응답자의 35%만이 가정 내 화장실이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함. 전반적으로 물과 모기로 인한 질병은 줄어들었고, 빈민층을 위해 의료 무상서비스가 제공되지만 15~49세 22%의 여성은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고, 10개 마을에 숙련된 의료진도 없는 상황임.
 - 응답자의 50%이상은 기초교육을 받았지만 단 1%만 고등학교에 진학했음. 여성의 14%는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지만, 20%는 문맹임. 이는 빈곤, 낙후한 교육 시설과 저학력 부모의 동기부여 부재로 인해 발생함. 또한 정부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

산부족과 한정된 기술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를 모르는 응답자도 다수 존재함.

- 여성응답자의 14%-29%는 지방단위의 지역의회 활동(commune council activities at the commune level)에 참여 한 적이 있지만, 고위직은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음.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자신감부족으로 여성은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에서는 여성리더를 양성하려고 하지만 여성의 무관심, 가족의 지원 부족으로 정치진출이 어려움. 고위직 여성들은 여성친화 환경의 부재, 남성과의 경쟁에 대한 부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어려움을 호소함.

□ 결론

- 본 연구는 보건, 교육, 권력관계, 젠더역할과 공공정책 등이 보완될 때 캄보디아 농촌 여성이 더 많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분석함. 젊은 여성이 고령 여성보다 더 경제적 기회가 많지만, 비숙련 노동에 한정되며, 특히 고령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즉, 보건, 교육, 농업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니즈를 인지하여 정책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CEDAW의 4항과 5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 명확히 해야 함.
- 농업 협업체(agricultural cooperatives, ACs)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행위원회의 자금관리능력, 리더십과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젠더관점의 정책수립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함. 또한 농업인의 이윤창출과 생산품을 홍보를 위해 판매자, 수출자, 공급자 및 소액대출 서비스를 연계시키고,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해야 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장려를 위해 동기부여를 해야 함. 정보공유와 여성의 성공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여성 플랫폼을 개발하여 경제 및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여성직업훈련센터 설

립 및 여성친화 농기구 개발과 자영업에 관심 있는 여성을 위한 소액 대출 지원이 필요함.

-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남성참여를 촉진해야 함. 가사일과 양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농촌여성이 자유롭게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또한 남성에게 여성의 권리 및 분노 조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함양시키고,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커뮤니티 단위의 캠페인을 개최해야 함. 또한 가정 내 문제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남성 토론 그룹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업 협업체와는 별개로 마을의 양성평등을 위한 소규모 그룹을 만들고 지방정부와 함께 협업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남성과 여성 대표를 선출하여 여성 권리의 옹호, 실행 및 지식에 대해 공유해야 함.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2019년 총선을 위한 정당의 차별철폐 정책 (Indonesia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ffirmative Action Policy of Political Parties for the Upcoming 2019 Election)

-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연구 소개
 - 본 연구는 2019년 인도네시아 총선에서 더 많은 여성 당원들이 국회의원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당의 여성할당제와 그 보완사항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선법 (No. 12/2003, 개정법 No. 8/2012) 65조항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30%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으나 2014년 총선결과 국회 내 여성대표성이 17%에 불과하였음. 법으로 여성의 정당대표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정당 내 여성대표성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당을 위한 정책제언 제공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고자 함.
 - 이 연구는 문헌조사, 초점집단좌담회(FGD), 심층연구로 이루어짐.
 - 문헌조사: 정당의 여성할당제 정책 및 규제 관련 데이터, 관련 연구 및 인도네시아 내 다른 여성할당제에 대해 조사하고 정당 내 여성

82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당원 및 여성 국회의원 수 현황을 조사하였음.

- 초점집단좌담회(FGD): 정당 내 여성 핵심당원 및 여성 국회의원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음. 참가자는 총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PDI-P의 여성당원 11명, PKS의 여성당원 3명, MPI의 여성당원 21명을 포함하고 있음.
- 심층인터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6-7월 2달 동안 PDI-P 소속 여성당원 10명, PKS 소속 여성당원 10명, 다른 당 소속 12명을 포함한 3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여성 대표성과 정당

- 2004년 도입된 인도네시아 의회의 여성할당제는 아직까지 양성평등 법적 측면에서의 큰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음.
- 2014년 총선에서 여성의 의석이 0.71% 감소하였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17.32%(DPR 의석 97석)에 그침. 이는 순위(The Rank Order) 또는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를 통한 30%여성할당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30%여성할당제는 입후보자 비율만 규제하기 때문에 정당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성의석확보가 17%에 불과하다는 것을 2014년 총선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음. 따라서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의 여성할당제가 필요함.

□ 연구 결과 및 분석

○ PKS당 (인도네시아 변영 정의당)

- 인도네시아 PKS는 2004, 2009, 2014 년도 선거에서 많은 여성을 입후보시켰음에도 불구하고(각각 40.7%, 37.17%, 38.8%), 국회에 입성한 여성은 현저하게 낮음(각각 0%, 5.3%, 1%). PKS당은 이슬람 당으로서 종교색이 짙고, 사회적 문화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함. 여성의 30% 쿼터 충족을 위해 교육훈련과 구조화된 시스템이 존재하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83

며 적절한 후보를 선별, 임명하여 당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정당후보를 선별하는 내부 일반 선거가 있음.

- 30% 쿼터를 충족하기 위해 직면한 도전과제로 자기브랜드화의 어려움과 캠페인 전략 홍보의 미숙함이 있음. 또한 부족한 선거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스캔들이 있는 경우 선출 가능성도 낮은 편임. 특히, 비례선거제도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정치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큰 장애물로 나타남.
- PKS는 여성 정당인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며, 당내에서는 회의를 통해 여성정당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미디어, 개인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

○ PDI-P당 (인도네시아 투쟁 민주당)

- 인도네시아 PDI-P는 2014년도 선거에서 여성의 비율을 1% 증가시킨 당이며,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당임. 여성의 당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지역단위에서 여성정치인이 출마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하지만 30% 쿼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원부족이 가장 큰 도전과제로 나타나며 또한 입법후보과정에서도 자금 부족과 캠페인중 성차별 및 여성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남. 여성을 대변하기 위해 여성의 당내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기타 정당

- Golkar 정당: 당내에서 여성 비율을 충족하려 노력하지만, 당 내부의 여성비율은 20%이며(45명 중 9명) 고위직에는 여성이 없음. 당내에 여성 단체가 있으며 이는 여성당원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유능한 여성을 뽑기 위해 정책을 실행하지만 여성활동가들이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왔기 때문에 내부적 제도에 있어서 도전과제들이 존재함.
- Gerindra 정당: Gerindra당의 차별철폐조치는 상당히 성공적이며, 전체 상임이사의 35.29%가 여성이고 고위직에도 많이 진출해 있음.

그러나 선출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강력한 지원도 부재한 상태임. 당내 PIRA 라는 여성단체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자금을 받고 있고 여성과 남성 후보 선출시 차별 없이 동등한 선출 과정을 거침.

- Hanura 정당: 국가차원에서는 여성의 30%를 의무로 하고 있지만, 지역단위, 마을단위에서는 이 비율을 고려하도록 언급만 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이사회석은 여성이 40%이상을 차지함. 또한 자금지원 정책이 존재하고 당내에 2개의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PAN 정당: 2015년 조례에 여성 30% 확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국 이사회석에만 30%를 차지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의석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정당 내에서 여성 임파워먼트 단체와 여성단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음.
- Nasdem 정당: Nasdem 정당에서 여성 30% 확보를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2014년 선거에서 그 효율성이 나타났음. 또한 정당내 여성단체가 존재하여 여성 정당인을 채용하고 교육할 때 중간역할을 하고 있음.
- Democratic 정당: Democratic 정당은 2015년 기준으로 여성 할당의 무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2019년 선거 전까지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임. 정당내 여성단체가 활동하며 인도네시아 내 28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의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권장하고 있음.
- PKB 정당: 여타정당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전 지역단위에서 여성 30% 확보를 명시함. 또한 차별철폐조약이 다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당내 여성단체가 존재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와 성과 및 역량 강화를 독려하고 있음.
- PPP 정당: 여성의 30% 이상 의석확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차별철폐조약을 실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단체가 운영 중이며 여성정당인의 채용에 차별이 없지만 보수적인 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네트워킹에 의존하여 입당하는 상황임.

□ 결론

- 여성정치인에게 두 가지 도전과제가 존재함.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이 부족하고 여성인력 개발과 자리 확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 외적으로는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 및 선거기관의 책임부족, 금권정치의 만연함이 여성할당시스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각 정당을 위한 제언
 - PKS: 정치에서 PKS 여성들을 증가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정당 내에서 여성친화 분위기 조성해야 함.
 - PDI-P: 여성의 당원수를 보완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30%를 충족시키고, 선거과정에서 자금부족을 겪는 여성 후보에게 체계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네트워크 강화, 정치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역량개발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실행이 필요함.
- 일반적 제언
 - 여성 정당인의 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각 당의 위원회에서 여성이 전략적인 리더십 지위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당의 내부 정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여성 후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 훈련을 제공하며 남녀 후보 모두에게 젠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에서 캠페인 기간 동안 자금지원체계를 확충하고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을 경험한 여성 후보를 지원해야 함. 또한 자금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 후보자의 모든 캠페인 비용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모든 여성당원들은 젠더친화정책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함.

3) [미얀마] 미얀마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소액금융 서비스 (Microfinance Services for Rural Women, from Gender Perspective: A Case Study on Myanmar)

- 미얀마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소액금융 서비스 연구의 배경
 - 본 연구는 미얀마 농촌여성에게 여신, 금융, 교육훈련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을 배경으로, 소액대출 서비스가 미얀마 농촌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소액대출의 활용성 및 방향성에 대해 젠더관점에서 분석하였음.
 - 미얀마의 빈곤률은 26%이며(2010년 기준) 농촌의 빈곤율은 거의 두 배를 육박함. 농촌 여성의 빈곤으로 인해 보건과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어렵지만, 소액대출로 인해 남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 소액대출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하여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기에 이 연구는 ① 비수혜자에 비해 소액대출의 수혜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향상되었는지 측정하고 ② 남성과 여성의 수혜자들을 비교하여 소액대출의 접근, 금액과 가족소비생활에 기여하는 소득격차의 존재여부 확인하며 ③ 소액대출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 가능성 확인 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연구 방법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량적 분석과, 성공한 여성의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진행함.
 - 연구디자인: 소액대출의 수혜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횡단분석 유사 실험(cross sectional quasi-experiment) 통계를 적용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분석함.
 - 샘플사이즈: 근교도시와 농촌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남성과 여성을 비교함. 도시는 Ka Watt 마을, 농촌의 Ayeyarwaddy 지역, 근교도시의 Hlaing Tharyar의 15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함.

〈표 Ⅲ-7〉 수혜자 및 비수혜자 샘플 크기

	사업분야	수혜자		비수혜자		전체 참여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농촌 농업	28	17	16	6	67
2	농촌의 소규모사업	2	14	0	6	22
3	근교도시의 소규모사업	16	27	0	22	65
	전체	46	58	16	34	154

□ 시사점

○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사회 인구학적 차이

- 연령, 평균 수입, 결혼여부와 교육 수준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짐. 연령과 평균수입에 대해 t-test로, 결혼여부와 교육 수준은 Chi-square test로 이루어짐.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사업 발전 여부, 가정내 시설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수혜자, 비수혜자간 Chi-square test를 실시함. 분석결과, 수혜자 비수혜자간 연령, 연소득, 결혼여부, 교육정도에 비슷한 양상을 보임. 또한 사업규모와 가정내 시설도 유의미하지 않음.

○ 남녀 수혜자간 소액대출, 금액 및 가정내 소득 차이

- 여성 수혜자가 남성보다 더 어리며, 배우자가 없고 공교육을 덜 받은 경우가 많음. 대출 금액 또한 남성의 절반에 가까우며, 초반의 대출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여성의 상환 속도가 더 빠르며, 같은 기간 여성의 대출금이 더 적음.
- 남성과 여성 모두 대출금은 대부분 농업에 투자하고, 자녀의 학비, 의료비, 음식과 같은 소비지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남성과 여성 수혜자간에 소득과 지출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 수혜자가 남성 수혜자보다 소액대출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함.

○ 소액대출의 성공사례를 통해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변화 관찰

- Kawatt 마을에 거주하는 Ma Khaing(34세)은 임시직에 종사하며 남

편도 임시직으로 우기에만 논에서 일하며 건기에는 직업이 없음. 남편은 20만 Kyats를 벌고 이 금액으로 두 딸과 일 년을 생활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함. Ma Khaing은 3만 Kyats를 60일로 대출받아 작은 가게를 열고 딸을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었음. 이 사례는 새천년개발계획 2, 3번을 실행하는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있음.

- Daw Myint Myint Thein(55세)은 과일 좌판을 운영 중임. 3년 전 PadaukMyaing에서 3만 Kyats를 대출받아 신용을 쌓고 현재 150,000 Kyats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현재, 과일 좌판과 함께 MiKwat 시장 초입에 약국도 운영 중이며 작년에는 집도 짓고, 종교에 더 기부도 많이 하게 됨.
- 미혼인 Ma Aye Aye Thant Bo(35세)는 Padaukmyaing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함. 2011년 30만 Kyats를 60일 동안 빌렸음. 처음에 대출 없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남성복과 아동복만 팔았으나, 금융지원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여성복까지 판매하게 되었고 재봉틀도 구매하고 수선도 직접 하게 됨.
- 이러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소액대출 수혜자들의 가정소득과 지출이 증가하여 생활수준이 나아졌음. 모든 여성 수혜자들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가족에 덜 의존적이며 고위험을 피하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게 되었음. 그들은 결과적으로 소액대출을 통해 자급자족하며 가치를 더 향상시켰음.

□ 고찰

- 소액대출을 통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점은 사실이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에 사업의 변화, 가정 시설 설비의 변화,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음. 애초 통제변수의 설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수입이 수혜자들보다 높았고, 소액대출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미얀마에서 24.8%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작 소액대출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서비스가

부재함.

- 소액대출의 합리적인 이율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특히 성불평등은 경제성장 및 빈곤해결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성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함.
- 여성의 성공사례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은 소액대출의 구조적 불평등보다 여성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성공한 여성들은 더욱 자신감이 있고,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존감이 높음. 즉, 소액대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동기부여가 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동기부여 자체로는 빈곤탈출과 농촌개발에서 충분하지 않으며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보듯이 여성의 교육, 역량강화, 사회정치적 활동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함.

□ 연구의 표본 및 해석에 한계점 존재

- 연구가 농촌지역과 근교도시로 한정되어 있고 이 표본이 미얀마의 소액대출을 일반화 한다고 할 수 없음.
- 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선택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 즉, 비수혜자의 수 입이 높은 것은 소액대출의 지원이 원천적으로 필요 없음을 의미함.
- 소액대출은 일반적으로 단기의 소규모 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단기간의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12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미 구 자료일수 있고, 포괄적인 젠더관점의 분석과 평가가 이 자료로는 불충분함.

□ 결론

- 소액대출 수혜자들은 소액대출을 통해 자율권이 강화되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측면에서 여성의 자율권이 충분하지 않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서비스와 지리적 접근에서 미얀마의 소액대출은 한계가 있음. 양성평등 실현이 사회경제개발의 초석인 만큼, 더 확고한 행동이 필요함.

4) [베트남]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여성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Study on the Situation and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emale Human Resource when Vietnam Joins Free Trade Agreements)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여성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배경 및 소개
 - 본 연구는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하여 현 베트남의 여성인력양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2016~2025년의 베트남 여성인력양성의 도전, 기회, 위협 요소를 분석하여 베트남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함.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인력양성 현황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베트남 여성인력이 보유한 장점을 파악하고 인력양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여 개발도상국의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향점과 정책 및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및 행동계획을 세우고자 함.
 - 동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함: ① 인력, 인력개발 및 양성평등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책 및 학술자료 ② 여성인력 및 여성인력양성에 관한 통계 분석 ③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 남녀 노동자의 초점집단좌담회(Focus Group Discussion) 및 심층면접 ④ 2016~2025년 베트남 여성인력 개발 방안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베트남의 FTA 가입과 여성노동력 관련법 관련 정책 분석
 -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베트남의 현대 법과 정책
 - 베트남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법안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2011~2030 베트남인의 통합적 신체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음. 즉, 지속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베트남인의 기대수명을 향상시킴으로서 후대 양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함.
 - 산업화, 현대화 및 국제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관련된 법안이 존재함. 이는 2006년 개정 이후 ASEAN이 경제공동체를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91

만들며 더욱 가속화됨. 고용법도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여하며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발전과 실업보험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사회경제 개발계획 2020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교육개발을 기초 정책으로 채택, 풍부한 인구를 활용하여 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또한 이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양성평등을 위한 법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역량강화와 훈련을 보장하고 직업훈련, 경력개발, 교육의 접근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명시되어 있음. 특히 2011-2015년 기간 중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와 일자리 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도 있었음.
- 베트남의 인력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 강점: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뿐 아니라 질적, 양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시스템임. 2005~2015년 여성의 직업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백만명 이상의 여성을 훈련시켰고, 81%의 여성이 훈련 후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음.
 - 한계점: 교육 및 훈련의 정책과 전략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훈련의 구조와 훈련정도도 수요를 만족하지 못해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 또한 훈련비, 교통비, 생활비 등 지원이 부족하고 직업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이 전문적 기술적 지식에 치중되어 있어서 외국어, IT 능력 같은 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태임.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성주류화 되지 않아서 여성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인적자원 개발과 양성평등과 관련된 FTA 규제
- 베트남은 현재까지 12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9건이 시행중임. FTA를 통해 베트남은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가치체인을 창출하며 중소기업의 무역을 강화시킴.
 - 여성인력과 관련된 FTA 법안으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있음. ASEAN 경제협약체의 상호인정협정은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숙련공의 기준을 정하지만, 숙련된 여성의 비율이 적은 실정

입. 또한 베트남-일본 협정은 베트남의 간호사에게 이익이 되며, 꿀, 과일, 커피 등의 제배종의 무관세로 인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됨. 이는 베트남-한국 FTA, 유라시아-베트남 FTA, 베트남-칠레 FTA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 각국의 교훈사항

- 한국의 교훈: 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노동법의 출산휴가 보장, 성차별금지법에 의한 채용과정, 승진의 평등권 보장뿐만 아니라 정책관리와 평가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교훈: 개발계획을 통해 여성 인력을 보호함으로써 여성에게 긍정적 변화를 주고 일터에서 역량을 쌓아 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 이런 정책을 통해 싱가폴은 뛰어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성과를 얻는 계기가 되었음.
- 방글라데시의 교훈: 방글라데시는 인력개발과 교육을 통해 인구 감소 정책을 펼쳤음. 문맹율도 남자보다 여성이 더 낮으며 여성의 교육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그라민은행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극빈곤층에게 기회를 주었음.
- 각국의 사례를 통해 베트남은 양성평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6~2015년 베트남의 여성인력상황과 2016~2025년에 대한 기대

○ 2006~2015년 베트남 여성에 대한 개요

-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0.66%를 차지하며 농촌지역에 도시보다 많은 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나 인구성장은 도시에서 더 빠르게 나타남.
- 베트남여성의 신체적인 조건은 몸무게, 키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평균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길게 나타남.
- 2015년까지 총 고용된 인원은 5280만명으로 이중 여성은 48.5%를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93

차지하며 이 기간동안 실업률 또한 증가세를 보임. 특히 여성은 비숙련공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고, 남성보다 더 불안정한 직군에 종사함. 베트남 여성의 45.45%가 농어업에 종사함. 특히, 고용분야에서 양극화를 보이며 운송, 건설 등에는 낮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각각 9.1%, 9.12%) 가사일, 교육 분야는 높은 비율을 보임(각각 95.84%, 72.72%).

- 약 260만명의 여성이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29.91%), 여성노동자는 사회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또한 교육 및 기술적 역량, 직업, 고용분야 등에 따라서 성별 간 급여차이가 발생함. 또한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이유도 남성과 종사 업종이 다른 점에 기인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덜 의욕적이며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을 비교적 쉽게 수궁하는데 있음.

○ 2016~2025년 베트남 여성에 대한 개요

- 베트남은 아세안 경제협약체의 통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12가지의 주요 산업의 성장 분야를 설정하였고,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의 8개 그룹(엔지니어, 건축가, 회계사, 통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어능숙인)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고용 기회를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지리적 이동의 어려움과 노령화 때문에 여전히 고용의 질은 낮으므로 노동의 숙련도를 향상시켜야 함.
- 2016~2025년도 여성인력지표는 사회경제적 상황, 2011~2020년도의 국가의 인력개발전략 방향, 2011~2020년도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전략 목표에 따라 분석함.
- 데이터가 제한적이라 다변수 회기분석이 불가능하여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과거 동향과 사회경제적 성장관점에서 분석함. 인구, 노동력, 고용 등에 대한 연간 통계를 바탕으로 반영함. 여성인구는 2025년까지 5천1백8십만명까지 증가하고 연 증가는 0.93%로 예상됨. 증가인구의 둔화로 인해 노동가능인력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여성노동인력의 강점: 젊은 여성인력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임. 또한 신체적, 지적으로 노동의 질 또한 향상됨.
- 베트남 여성노동인력의 단점: 비공식적인 분야의 노동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미비하고, 여성의 신체적 지적 능력이 아직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임. 또한 여성인력의 구조가 저부가치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개발에 장애가 됨.
- FTA로 인한 여성인력시장의 기회: 베트남 여성은 FTA를 통해 선진 지식과 현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 FTA에 의해 창출되는 노동시장이 베트남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TPP와 EVFTA이 가진 특별 규제와 양성평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인력 개발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제 시장으로 나아가며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임.
- 도전과제: 베트남 여성인적자본의 자질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함. 또한 FTA가 야기할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베트남의 경제 가치의 절대성과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마약중독, 성매매, 여성인신매매 등 사회악이 여성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베트남 여성에게 문화적 제도 및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분리하고 이러한 규범이 여성이 통합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데 저해가 됨.

□ 결론

- 국제적 통합 맥락에서 베트남의 발전을 위한 여성 인력의 요구사항
 - 국내적 관점
 - 2016-2020년의 국제경제통합화 산업과 현대화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경제재건, 도시화과정 및 새로운 산업과 직업의 급부상하에 여성역량개발의 요구를 충족해야 함.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95

- 인력자원개발에 있어서 성불평등을 제거하고 기술적인 잠재여성 지원을 위해 여성 인력개발을 지원해야 함.

- 국제적 관점

- 베트남 여성인력 자원은 더 영향력 있는 범국가적 협력의 맥락에서 국제 가치 체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여성은 적응력을 함양하여 저투자 및 자원고갈을 극복해야 하고,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능력의 변화 속에서 발전기회를 향상시켜야 함.
- 선진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하므로 베트남의 남녀 노동자가 국제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함.

□ 제언

- 전반적으로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정책입안자와 관련 기구 매니저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여성인력 개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자원 개발을 위해 성주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관할관청이 여성인력자원개발을 결정하는 법적 조항을 수정,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취약한 여성 노동자를 지원해야 하며 베트남 여성연맹, 노동자연맹, 청년동맹 등 사회기관들이 프로그램을 관리, 평가하고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FTA를 준비, 협상, 체결,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FTA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활동적인 기구가 필요하고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3번 조항에서 언급한 정책에서 성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기구 위탁연구 세부내용

1) [UN Wome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하에서 양성평등 목표(SDG 5)의 달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안)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 (Knowledge and Evidence Creation: Baseline Publication on SDGs, Goal 5 and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Asia Pacific)¹⁾

□ SDG 기초선 연구의 국제적 담론과 배경

- UN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함으로써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SDGs 출범을 통해 젠더문제가 더욱 대두되었지만 SDGs 시행 전에도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젠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존재해왔음. 일례로, ASEAN국가의 SDGs를 위한 양성평등 달성 노력, 태평양섬국가의 젠더 관련 포럼,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의 여성과 소녀를 위한 협력강화가 있음.
- SDGs 달성에 있어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음. 위험요소인 고령화, 도시화, 기후변화를 지역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기회요소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성평등과 SDGs의 현주소

- 성불평등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저해요소(severe brake)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 이를 위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양성평등 기초 현황을 살펴보고

1) 본 연구는 2개년동안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SDG 기초선 연구이며 현재 발간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완성본은 내년에 발간될 예정임. 이 장은 보고서의 초안과 앞서 설명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97

SDGs의 젠더 관련된 타겟과 지표를 분석해 봐야 함. 구체적으로, 젠더 관련 지표와 현존하는 각국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미비한 점을 파악해야 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아래의 4가지 축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Pillar 1]인간 능력에서의 평등: 여성과 여아에게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시간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여성의 건강은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근간이며 성불평등은 여성에게 특히 식량, 보건시스템, 정신건강, 학습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 [Pillar 2]여성의 경제역량: 여성의 경제참여는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지만 이는 성차별적인 고용시스템, 무급노동, 급여의 격차, 자본 접근에 대한 성차별 때문임.
- [Pillar 3]여성의 참여와 리더쉽: 여성 정치참여의 법적 할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여전히 여성의 정치진출에 장애물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여성운동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아태지역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Pillar 4]여성과 소녀의 안전: 아시아 지역의 여아 실종이 만연한 상황이며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함. 어린 여아일수록 성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조혼을 통한 강간이 자행되고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많은 상황임.

□ SDGs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 초점 분야

- SDGs 하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 추진해야 할 분야가 있으며 이 분야의 맥락을 이해하고 목표로 할 때에 SDGs 달성이 실현될 수 있음.
- 여성과 여아의 보건시스템 강화: 여성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제약으로 어려운 피임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 여성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 이를 통해 HIV 감염을 예방하고 소년

기의 여아 보전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격변의 시대에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양성평등, 경제성장의 역학관계를 이해해볼 때, 이 세 조건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임. 따라서 여성의 경제역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사회보호시스템을 확충해야 함. 특히 젠더관련 예산 및 성평등을 촉진하는 세금부과시스템을 고려해야 하며 무역자유화 및 금융자유화에 있어서 젠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기후변화와 재난위험관리에서의 여성: 기후변화에 있어 여성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인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활동과 여성의 기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기후관련 정책에 있어서 성관점이 도입되어야 함.
- 안전: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며 국가인권기본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함. 더 나아가 가정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인지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개최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SDG Baseline Publication: Evidence-based Policy Advocacy for Gender Equality and Localisation of the SDGs in Asia and the Pacific)

- 앞서 ‘위탁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2개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임.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하고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였음. 이 자문회의에서 SDG 기초선 연구의 활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을 높이며 거버넌스, 인권, 기후변화, 성폭력 등의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한 젠더 관점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였음.

〈표 Ⅲ-8〉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개요

- 주제: SDG 기초선 연구 자문회의 (Regional Consultation on the SDG Baseline Publication: Evidence-based Policy Advocacy for Gender Equality and Localisation of the SDGs in Asia and the Pacific)
- 일시 및 장소: 2016년 11월 15일 ~ 11월 17일/태국 방콕 랜드마크호텔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 아시아개발은행(ADB)

○ 회의내용

- 1일차 (11월 15일): SDGs 아래 양성평등의 성취와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시작으로 젠더관점의 SDGs 의제를 알아보고 SDGs 기초선 연구에 대한 개념적인 체계에 대해 발표하였음. 또한 아태지역의 양성평등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과 여아의 안전과 보건과 출산에 대한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 대해 토론하였음.
- 2일차 (11월 16일): 여성의 경제적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면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며, 농촌지역의 양성평등과 경제성장을 토론하였음. 또한, 여권을 신장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점과 리더십 강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응하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 살펴본 후 관련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 3일차 (11월 17일): 국가별로 나누어서 경험을 소개하고 토론이 이루어짐. 참여 국가는, 필리핀, 바누아투, 네팔, 방글라데시, 몽골이며 지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입 강화와 양성평등,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지원을 주제로, 효과적인 평가방법과 데이터의 차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젠더지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4. 성과 및 제언

□ 협력국 위탁연구 성과 및 제언

- 본 연구사업은 협력국 내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부재 시, 연구역량이 뛰어나고, 현지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지 연구기관을 선정하되,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진행 단계마다 본원 연구진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다양화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음.
- 협력국 위탁연구는 한국측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현지 자료나 현지 전문가와의 면접 등 인력 풀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다는데 그 성과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초 데이터는 협력국 내 여성정책 수립 및 여성연구 주제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향후 본원의 ODA 사업 진행 방향 및 한국정부의 ODA 사업 방향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16년도 협력국 위탁연구를 통하여 다차년도 위탁연구의 지속 중요성이 가시화되었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위탁연구의 경우 동일한 주제로 3년차 연구로 진행하였음. 이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는 기초연구자료의 축적이 가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의 수립이 가능하였음. 이는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도 현지 여성이 겪는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경우, 문제점에 대한 협력국 정부의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함.

□ 국제기구 위탁연구 성과 및 제언

- **국제사회의 SDGs 이행에의 기여:** 본원이 지원하는 SDG 기초선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설정된 목표와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젠더지표 개발을 위해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Ⅲ.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101

시도되는 연구이며, 타 대륙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의미 있는 연구임. 젠더이슈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다섯 번째 독립목표이자 다른 목표에서도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되어 반영되어야 하는 범분야 이슈로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달성 없이는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SDGs에 대한 젠더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매커니즘 수립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 **아태지역의 SDGs 이행에의 기여:** 아태지역 내 개도국 여성들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인한 여성정책 수립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SDG 기초선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기초자료는 개도국 내 여성정책의 공백 파악을 돕고 이는 향후 현지의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기초선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젠더지표를 통해 개도국 내 여성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 **국내 SDGs 이행에의 기여:** 동시에 SDG 기초선 연구는 아태지역 개도국 여성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및 통계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 종사자, 학계 및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젠더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 관련 국내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원 ODA 연구사업에의 기여:** UN Women 아태지역사무소의 지역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SDG 기초선 연구를 통해 구축된 아태지역 내 여성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아태지역 개도국 내 현지의 양성평등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본 ODA 연구사업의 발전에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또한, 본원 연구자 파견과 SDG 기초선 자문회의 참석 등 SDG 기초선 연구를 통한 본원과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 간 전문성 교류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봄.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해 본원 차원에



102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서는 글로벌 맥락 속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 및 주요과제에 대해 파악하고,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에서는 본원의 참여를 통해 연구성과의 질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1. 사업배경 및 목적	105
2.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105
3. 세부내용	109
4. 시사점 및 제언	125



1. 사업배경 및 목적

- 본 ODA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대상국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을 발굴하여 사례연구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해오고 있으며, 각 사례연구별로 영문화하여 별도 책자로 발간해오고 있음.
- 축적된 사례연구자료는 향후 현지 맞춤형 여성정책 모형 개발 및 정책자문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의 여성정책·사업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발도상국 여성정책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와 공유
 - 향후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자문 제공에 활용
 - 각종 국제회의 시 해외참가자들과 공유

2.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개요 및 운영방식

가. 개요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분야별 한국 여성정책 및 사업 추진경위 및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그 세부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함.
 - 추진배경
 - 사업 및 정책 내용
 - 프로그램 추진과정
 - 평가
- 1차 작업(2013)을 통해 9개 사례연구, 2차 작업(2014)을 통해 8개 사례연구, 3차 작업(2015)을 통해 5개 사례연구가 영역화 되어 발간되었음.

〈표 IV-1〉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목록(2012~2015)

발간 연도	연구명	집필자
2013	Political Education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The Role of Women's Organization under the Saemaeul Undong (New Village Movement) in Rural Communities	최인이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Expanding Support System for Sexual Violence Survivors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Initiating Support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Case of Korea Women's Hotline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Women's Movement fo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 Trade(2000-2004) and Contributions by the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조영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초대 소장)
	Gender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김재인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of Women's Policy R&D: The Case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정현주 (전 경기가족여성개발원 원장)
	Producing Gender Specialists through Women's Studies in Universities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Family Planning Initiatives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교육과 교수)	
2014	Introduction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the Party List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Policy Support for Women Farmers	김경미 (농촌진흥청 과장)
	Protection Syste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exual Abuse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istory and Management of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Institutionalization and Evalu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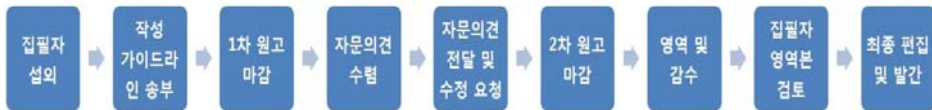
발간 연도	연구명	집필자
	Establishment of Gender Statistics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Policy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Employmen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olicy to Encourage Female Students in STEM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	Wome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Projects in Korea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arental Leave System in Korea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mmunity Programs Operated by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Korea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Abolition of Family Headship System and Gender Governance in Korea	송호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Policy Supports for Women's Vocational Education and Business Start-ups in Korea	오은진, 양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림 IV-1]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보고서

- 금년도에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가 추가로 영역화 되어 본 사업보고서의 부록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임.
 - 국회 및 지방의회 모니터링 방법과 사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은희 이사)
 - 성폭력피해자 원스탑서비스센터 (해바라기센터 우경희 부소장)
 - 육아지원 정책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나. 운영방식



[그림 IV-2]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 전체 추진일정

- 집필자 선정 및 작성 가이드라인 송부
 -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구축을 위해 선정된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집필자를 선정함.
 - 사례연구별로 그 내용에 따라 모든 원고의 형식이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개도국 여성정책 관계자를 독자로 하는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화 작업의 취지에 맞도록 원고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 가이드라인을 송부해 원고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집필자의 취지를 제고함.
 - 집필 가이드라인 상에는 연구의 일정, 분량, 원고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등과 함께, 목차에 대한 예시와 함께 집필자가 참고해야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원고에 대한 피드백 및 수정 절차
 -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원고가 집필 완료되는 시점에 유관분야 전문가 2인을 추천받아 원고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집필자는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영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수를 병행하고, 집필자에게 전문용어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개도국 독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

3. 세부내용2)

가. 2016 사례연구 1: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의 추진 목적과 배경, 현황에 대한 개괄적 소개
 -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은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증진하고 저출산 및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임. 2012년부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교육과 보육으로 개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임. 크게 교육은 교육부의 1) 어린이집 확충 정책,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2)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 동 보고서는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과 사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확충정책과 보육료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의 육아지원 이원화체계 및 정책: 한국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의 변천과정, 보육 및 유아교육 이원화체계, 유보통합 논의
 - 육아지원정책의 이원화는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유아교육 정책과 보건복지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복지 관점의 보육정책이 따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함.
 - 한국의 보육정책은 2006년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새싹플랜, 2006~2010)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을 개선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의 도입, 2013년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년)’ 시행으로

2) 본 절에서는 개별 날권 부록보고서로 발간될 3개 사례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0~5세 전 계층 대상 보육료 지원이 실시되었음. 무상보육이 시행된 것임. 정부의 보육지원 추진 과제는 ① 보육·양육 부담 경감, ②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③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④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⑤ 신뢰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⑥ 보육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이 있음.

- 한국의 유아교육정책은 영유아기의 교육 투자의 중요성 강조와 미래 인적자원 육성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음.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취학전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1910년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2012년 유아교육선진화 계획, 2013년 유아교육 5개년 계획을 세웠음. 유아교육 5개년 계획은 ① 유아교육 기회 확대, ② 유치원 운영 효율화, ③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④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⑤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은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데, 최근 교육과 보호, 보호와 교육이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여서 분리된 두 정책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함.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 유보통합 논의는 최근 보육정책의 변화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교육·보육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유보통합의 요소는 관리부처, 법·규제, 질 관리, 교사, 교과과정, 서비스 시설, 재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4년(1단계)부터 2015년(2단계), 2016년(3단계)에 걸친 단계별 통합 과제를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집 확충 정책: 한국의 육아지원 이용 현황, 어린이집 확충 추진 배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개선점 등
 - 한국의 육아지원 이용 현황은 20여 년간(1993년~2014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수, 영유아 수, 교사 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나타냄. 어린이집은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1993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관찰되었음. 반면 유치원은 변화의 추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11

- 어린이집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 발전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보육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정부는 급증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설의 수가 10배 이상 증가함. 시설의 양적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 부실 운영 및 보육교사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1~5세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음.
 - 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개선점으로 다음 내용을 제시함.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 지역적 균형을 잘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및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중요할 것임. 지역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방향 등을 분명히 하여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연구가 필요할 것임.
- 보육료 국비지원 정책: 보육·유아교육 국고지원 예산 추이 및 보육료 국비지원의 추진배경, 정책의 개선점
- 2003년까지 가계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하던 정책이 2013년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및 교육 지원으로 확대되었음.
 - 보육·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의 변화 추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표 참조). 예산의 일부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되었고, 대부분은 부모들을 위한 보육료 부담액으로 지원되었음.

〈표 IV-2〉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아교육	1,235,853	1,500,018	1,923,903	2,704,516	4,139,704	5,304,268
보육	3,573,811	4,288,947	5,018,600	6,132,183	8,218,859	8,557,370

주: 유아교육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포함. 보육예산은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출처: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112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부의 인식이 분명했기에 보육료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음. 어린이집 비용 지원은 시설 운영비 지원(시설보조금), 보육료 지원(부모보조금), 인프라 구축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음. 보육 사업은 7가지 사업(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보육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육료 국비지원 정책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재정확대를 달성한 현 상황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둘째,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족,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어린이집 종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이는 무상보육의 달성에서 더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임.
-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개선방안 및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개발도상국에 주는 시사점
- 보육관련 연구와 정책 분석을 통해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 첫째, 보육과 교육 서비스 공급 체계와 관련하여 민간 위주의 시설 공급이 진행되었고, 시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민간 공급에서 국공립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시설 증가가 지속될 경우 차후 공급 과잉의 문제도 우려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환경과 이용시간(유치원 4~5시간, 어린이집 12시간), 교사의 자질(어린이집 고졸 이상, 유치원 대졸 이상) 및 처우 등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3~5세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13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셋째, 어린이집이 평일에 종일 12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함. 종일 운영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 보육에 있어(특히 영아 양육에 있어) 방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보육시설 이용 경쟁이 심해져 오히려 직장여성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며,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넷째,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함. 운영 및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하고,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 강화 및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다섯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우수한 인력의 유출을 막는 방안이 필요함. 보육교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인데, 긴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보육분야의 좋은 인력들이 유출되고 서비스의 질 저하현상이 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과제는 취업 및 미취업 부모의 개별적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자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지속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육아지원정책의 대상과 지원 방법, 지원 수준, 이용자의 비용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함.
 -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을 참고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은 우선 한국과 비슷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지 생각해보고, 정책 도입이 가능할지 조건들을 체크하고 도입시점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함.

나. 2016 사례연구 2: 여성정치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

- 의회 입법과정의 시민참여와 의회 내 여성의원 증가 및 의정모니터링의 필요성
 - 정치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며,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함. 시민의 대표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이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민주적 의회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 초기목적이었음.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과 국회에서 민주적인 변화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활동의 일환으로 의정모니터링을 구상하였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제대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 및 평가하고자 함.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결과가 다음 선거에 있어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비교평가함으로써 의원간 선의의 경쟁을 만들고 전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함.
 - 한국 의회 내 여성의원 증가의 중요성과 의정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교육, 보건, 건강 부문에서의 성격차가 감소하였으나, 경제 및 정치분야의 성격차는 여전히 높았기에 법적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하고자 함. 2004년 17대 총선의 여성정치할당제 도입 등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3%를 차지하였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17%를 달성하였음. 2006년 지방의회에도 여성정치할당제가 도입되어 여성지방의원의 수가 증가하였고, 2014년 21.6%까지 확대되었음. 하지만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가 실질적인 정치대표성의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15

확대로 이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의정모니터링의 시행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대표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성공적인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기본 덕목과 성인지 의회 및 의정모니터링의 개념
 - 성공적인 의정모니터링을 위한 10가지 덕목은 다음과 같음. ① 리더십과 헌신, ② 시민권리, ③ 명확성, ④ 시간, ⑤ 객관성, ⑥ 재원, ⑦ 조정, ⑧ 책무성, ⑨ 평가, ⑩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음.
 - 성공적인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덕목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의 지방의회와 국회는 압도적으로 높은 남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의회는 이러한 현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 활동과 모든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성평등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회임. 한국의 성인지 의회 관련 사례로는 이후 IV장에서 검토할 ‘17대 국회 평등국회지킴이’ 라는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있음.

- 한국 시민단체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의 개괄과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사전적 고려사항
 - 한국 시민단체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데 중점이 있었음.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가 있고, 여성운동단체의 경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일회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있음.
 - 모니터링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① 의원의 의정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② 의정활동평가에 따른 의원의 순위 및 우수의원 선정, ③ 특정시기 동안 한정적 의정모니터링 시행, ④

대학생 참여 활동, ⑤ 특정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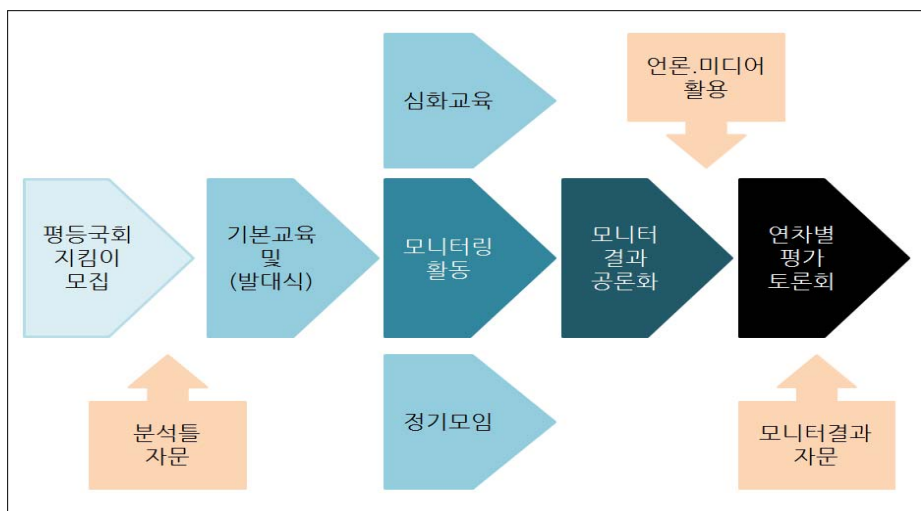
- 의정모니터링에 앞서 필요한 사항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의회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함. 의회의 운영 일정에 맞추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정모니터링의 중점사항임.
- 본 연구에서 검토할 사례의 범위는 2000년대 중반에 실시된 의정모니터링이고,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주도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이 사례는 국회(2004~2008, 17대 국회)와 지방의회(2006년~최근)를 대상으로 시행한 성인지 의정모니터링 활동임.

□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 활동의 시작배경과 현황, 성과 및 한계

- 2004년 17대 총선 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이하 여세연)가 주도하여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함. 102명의 여성후보추천리스트를 만들었고, 각 정당에 이 후보들의 공천을 장려하여 여성정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맑은정치여성기금’이라는 모금활동을 통해 선거자금을 조성하였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이하 맑은넷)’을 조직하여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음. 그 결과, 46명의 여성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었고 21명이 최종 당선되었음. 선거 이후 맑은정치여성기금의 남은 기금을 활용하여 당선된 여성의원들의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구상하였음. 성평등 모니터링 활동인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가 추진됨.
-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의 주 모니터링 대상은 17대국회 여성국회의원들이며 이들의 입법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음. 여세연이 기획한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의 추진 배경은 당선된 여성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기 때문임. 여성의원들의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대표성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이고자 이 활동이 추진되었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여성의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17

- 있도록 지원함.
- 사람들이 여성의원들에게 기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 ②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한 성평등 정책 구현, ③ 여성정치인 네트워크 조직과 여성대표성 제고, ④ 후세대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이었음.
 -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 활동의 특징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주로 참여했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탈피하여, 일반 여성시민들이 모니터링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임.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익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었음.
 -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 활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그림 IV-3 참조). 여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평등국회지킴이를 모집하고 성인지적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교육 후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함.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토론을 통해 모니터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최종적으로 1년간의 의정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연차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 토론회를 통해 본 분석의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그림 IV-3] 17대 국회 평등국회지킴이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기본 진행

- 성평등 의정모니터링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함.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정량평가(기본 성실성 및 입법발의건수)와 상임위원회 활동전문성 측면에서 남성의원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실제 남녀 의원 모두 여성관련 발언과 여성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사실임. 또한 성평등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정치와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 정치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었음. 본 모니터링을 기획한 활동가 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례도 성평등 모니터링의 성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의정모니터링의 한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재정이 부족해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고, 정량평가의 한계, 지표 개발 등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의 한계가 지적되었음.
-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의정모니터링의 시작배경과 설계과정, 활동의 연계성, 성과 및 한계
 - 1990년대에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하게 대두됨.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지역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첫 통로가 되고, 지방의회의 여성의원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장을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 작업임.
 - 지방의회에서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큰 틀(기본 방향, 목적, 모니터링 대상, 진행과정)에 있어서 앞서 논의한 국회 모니터링 활동과 비슷하지만 지방의회가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짐. 첫째,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 주부들이 중심이 됨. 모니터링 일정을 주부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계획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모함. 교육과 모니터링 지표 및 평가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모니터단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전달하고자 노력함. 방청일지 작성을 통해 질적평가를 실시하고 의정활동분석표를 활용하여 양적평가를 실시하였음. 두 번째 특징은 모니터링 대상인 여성지방의원과 연대 및 협력할 수 있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19

도록 함. 모니터단이 방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하게 되며, 반대로 성평등 의제를 발언하는 데 있어 정서적 지지를 얻기도 함.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오히려 지방의원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례도 있었음.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은 각 지역에 산재해 활동하는 형태이고, 규모와 역량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음. 그 예로 ‘생활자치마을정치여성행동’, ‘여세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여성지방의원의 의정사례 토론회 개최와 의정사례집 발간을 소개함. 여성지방의원이 주도한 여성친화적 우수 의정활동사례를 조사 및 정리하여 이를 공유하는 활동임. 여세연의 경우 더 나아가 향후 ‘자체적인 의정모니터링-광역단위 지역 내 소통 및 연대-전국 각 지역 의정모니터링 단위의 연계와 협력-여성지방의원과의 소통’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음.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 여성들의 의식전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중요함. 참여를 통해 자신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체득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사회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성과라 할 수 있음. 또한 여성의원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모으고 알리는 활동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별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음.

□ 시사점

- 앞서 논의한 의정모니터링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7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7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① 명확한 모니터링 목표 설정, ② 핵심과제 설정, ③ 비교가능한 데이터 축적, ④ 지속적인 실행, ⑤ 모니터링 대상과의 소통, ⑥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⑦ 모니터링 조직 간의 네트워크

크 구축이 있음.

-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인 ‘17대국회 평등국회지킴이’를 통해 여성의원이 실제로 남성의원에 비해 양적으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여성친화적 입법을 위해 더 노력했음을 입증한 것은 큰 성과임. 하지만 17대 임기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한계를 가짐. 한시적 운영의 원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인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다. 2016 사례연구 3: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의 원스톱 서비스: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서론: 기관설립의 시대적 배경과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1990년대에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0년대에 발생한 성폭력피해 관련 사건들은 성폭력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내었고, 이는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음. 이후 어린이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2003년에 발생한 성폭력피해 여아의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고, 마침내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건립이 추진되었음.
 - 본 연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서울센터(아동)의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정책과 기관 설립을 고려하는 국가나 관계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고자 함.
- 서울센터(아동)의 설립 과정: 아동성폭력 전담기구 추진위원회 조직, 해외사례연구를 통한 한국형 아동성폭력 전담기구 모델구축 과정
 - 아동성폭력 전담기구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21

가장 시급한 문제인 ① 빠른 의료적 응급조치와, ② 2차 피해 없는 경찰수사, ③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추진위원회는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관계자와 교수, NGO활동가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됨.

- 아동성폭력 전담기구는 병원의 거부 없이 빠른 응급진료가 가능케 하고, 경찰수사과정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없애고, 나아가 정신적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사후지원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추진되었음.
 - 아동성폭력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 해외사례들을 연구하였는데 이 중 미국의 “The Kempe Children's Center”의 기능과 역할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였음.
 - 한국형 아동성폭력 전담기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먼저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의료조치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병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병원 위탁운영체계를 마련하였음.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적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동성폭력 전담기구를 구축하였음.
 - 위의 한국형 아동성폭력 전담기구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 연세의료원이 위탁병원으로 선정되었음. 연세의료원은 이미 “종합병원 내 아동학대 예방팀”을 가지고 있었고, 의료지원과 법적지원에서 있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음. 위탁병원이 선정된 후 2004년 첫 국가주도의 한국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가 개소하였음.
- 서울센터(아동) 운영현황: 센터의 사업 내용, 사업 주체 및 역할, 조직 및 업무분담, 소요예산, 시설현황 등 실질적인 운영
- 서울센터(아동)의 사업은 크게 ①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제공, ②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③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④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등으로 요약 가능함.

- 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서울시-연세의료원-센터가 함께 하고 있음. 센터 자체의 조직은 센터장(연세의료원장), 소장, 부소장과 4개의 팀(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상담·법률지원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센터의 사업은 100%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승인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임.
- 서울센터(아동)은 연세의료원에서 10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병원과 별개로 센터를 마련한 이유는 피해아동이 센터에 내원할 경우 병원에 갈 때 가지는 거부감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임. 이용자가 많아 2009년 두 배 가까이 확장공사를 하였고, 아동대기실, 대기실, 상담실(2), 회의실, 상담치료실(2), 미술치료실, 놀이치료실, 진술녹화실, 진료실, 보건실, 소장실, 부소장실, 자료실, 탕비실 등을 갖추고 있음. 아동친화적인 인테리어로 아동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시설임.

□ 원스톱 서비스로서의 특징

-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수사·법률지원, 사회적 지원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개입 절차는 상담 → 정신과전문의 진료 → 심리평가 → 심리치료 → 법적지원, 수사지원, 사회적 지원 → 종결 → 사후관리로 설명함.
- 상담지원은 초기전화상담, 초기면접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을 포함함. 성폭력피해가 의심되어 전화상담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센터를 내방한 내담자는 초기면접상담을 100% 실시하고 있음. 초기면접상담에서 피해내용 및 경위 파악과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 및 설명함. 부모상담과 교육 지원은 위기개입상담, 부모의 심리적 안정, 사건처리, 자녀에 대한 대처교육을 포함한 서비스임.
- 의료지원은 크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신체외상진료로 구분함. 의료지원은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위한 것으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23

로 접수면담 당일 바로 진료를 받고, 진료과정은 법적 증거 및 객관적 자료로 보관함. 외상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사전 동의 후 검사 및 증거채취를 실시하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해줌.

- 심리지원은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포함함. 심리평가는 아동·청소년의 현재 심리상태 평가와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보고, 보호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평가하는 과정임. 센터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는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상담치료, 미술치료 등이 있음. 정신병리 및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등이 치료를 실시하고 있음. 실시치료 초기에 부모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가족의 심리적 후유증이 큰 경우 이들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도 진행함. 재판과정에서 센터 측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경우 동행하고 있음.
- 수사·법률지원은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 의학적 증거 확보, 진술녹화, 법정증언, 문서자료 제출 등을 포함함.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자문변호사,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연결해주며, 수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 사회적 지원은 피해아동 및 가족들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시설과 연결하고, 지역사회적응훈련을 통해 회복 후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함. 보호자와 함께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의 경우 동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동하는 데 있어 필요한 봉사자, 차량 지원, 찾아가는 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성과 및 시사점, 개선방향

- 2004년 서울센터(아동) 설립 이후, ‘해바라기아동센터3)’, ‘여성·학교

3) 2014년 당시 “해바라기센터(아동)”의 명칭은 “해바라기아동센터”였음.

폭력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년에는 이름이 다르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였음. 2016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는 아동형 8개소, 위기지원형 16개소, 통합형 12개임.

- 해바라기센터 설립 이후, 한국의 성범죄 신고율이 2003년 이후 10년간 196%로 증가했는데,⁴⁾ 이는 체계적인 보호시설이 갖추어진 후 신고율이 증가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범죄유형이기 때문임.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일수록 신고접수율이 낮게 나타남.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원스톱 서비스인데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 1인당 평균 약 21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 중 상담지원이 약 34.2%, 수사·법률 지원이 14.1%, 의료지원 11.3%, 사회적 지원이 3.1%의 비중을 차지함.⁵⁾ 2009년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정부와 전문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한 선진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기소조차 불가능했던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통합지원센터의 법적 지원을 통해 승소한 사례도 있음. 성폭력피해자들의 치료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 변화와 타 기관들과의 연계, 전문가 양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음.
- 앞서 언급한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 또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첫째, 준비단계에서부터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몇 개의 센터가 필요할지,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둘째, 통합지원센터는 여러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이므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역할 및 권한 배분 등을 면밀히 논의해야함. 셋째,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4)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2014), 『치안전망 2014』.

5) 10주년사업보고서(2014),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평가와 발전계획을 세우는 지속적인 작업이 중요함.

4. 시사점 및 제언

가. 개도국 적용에의 시사점

□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 육아지원정책은 육아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가정양립 및 경제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평등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실제로 한국 역시 여성들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육아지원정책이 발전해 왔음. 따라서 경제적 발전 과정에 있는 개도국에서도 여성의 경제참여 제고를 위해 도입 가능한 정책임.
- 다만, 사례연구 내용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개별적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한국의 사례를 개도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국가별로 여성들이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한국이 그동안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해 봉착한 시행착오(공급과잉의 문제, 충분한 이용시간 및 좋은 교사 확보의 문제, 아동과 보육교사 복지의 문제 투명성 문제 등)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성정치 역량강화 사업: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

- 한국의 성평등 의정모니터링 사례는 성인지적 정책의 수립 및 입법 절차의 민주성 확보라는 성과와 더불어, 여성 국회의원들이 남성 국회의원에 비해 성 인지적 입법과정에 더 적극적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다만, 사례연구 내용에서 언급된 것처럼, 의정 모니터링이 갖는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한시적으

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는데,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사업이 정부예산 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더 큰 장애요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됨. 따라서 개도국에 의정모니터링 사례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재정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사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체계적인 원스톱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였으며, 여성인권과 관련된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는 개도국 정부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다만, 앞서 언급되고 있듯이, 한국의 시행착오에 대한 교훈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데, 원스톱서비스센터의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전국적 차원의 수요와 운영을 위한 인력규모에 대한 파악을 통해 체계적 기획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기관 간의 역할분담 협의 과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역시 타진되어야 할 것임.

나. 향후 과제

- 기존에 구축된 사례연구를 개도국 여성정책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이용하고 있음. 우선, 본원 홈페이지와 국제센터 영문 웹페이지를 통해 보고서 원문을 업로드해 개도국 독자들이 언제든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SSAGE 워크숍과 본원이 개최 혹은 참가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집을 소개하거나 비치해오고 있음.
- 향후에는 기존의 사례연구 확산, 보급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좀 더 상

IV.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127

호적이면서도 다양한 공유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됨.

- 우선, 앞서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기 보다는 현지의 사정에 맞춘 양방향적인 적용이 필요하므로,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를 반영한 주제발굴과 더불어, 각 구축된 사례별로 현지의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개도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고민되어야 할 지점임.
- 또한, 별도의 부록보고서로 발간된 형태인 기존의 보고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도국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 역시 향후 과제로 남아있음. 너무 축약된 형태보다는 보고서 형태가 해당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나, 현지 정책관계자들이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고서 내용을 축약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현재 사례집이 영문으로만 발간되고 있는데 현지 언어화 및 해당 발전경험 사례와 관련된 강사풀 구축을 통해 향후 해당 사례를 현지 정책전문가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V . 젠더와 ODA 포럼

1. 사업배경 및 목적	131
2. 젠더와 ODA 포럼 개요와 운영방식	131
3. 세부내용	132
4. 성과 및 제언	136



1. 사업배경 및 목적

- 젠더와 ODA 포럼은 국내·외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정부기관의 개발협력 및 젠더분야의 전문가들을 포럼연사로 초청하여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의 장으로서 국내외 개발협력 분야의 동향을 파악과 이를 통한 본 연구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연 4회 개최되고 있음.
- 이를 통해 본원과 국내외 ODA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연구교류를 도모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한국 정부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개발협력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2. 젠더와 ODA 포럼 개요와 운영방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젠더와 개발관련 지식공유를 위해 ‘젠더’와 ‘ODA’를 접목한 ‘젠더와 ODA포럼’을 2016년 분기별로 총 4회를 개최함. ODA 사업 평가, 농촌개발, 환경, 국내·외 ODA 최신 중점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계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외 유·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 전문가가 ‘젠더와 ODA 포럼’의 발표자로 참여하였음.
- 지난 9월 협력국의 수요에 기반 한 여성정책 컨설팅 (SSAGE) 및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포럼 개최로 인하여 연기된 제 23차 젠더와 ODA 포럼은 제 24차 젠더와 ODA 포럼과 함께 12월에 개최될 예정임.

〈표 V-1〉 2016 젠더와 ODA 포럼 개요

차수	개최내용
제 21차 젠더와 ODA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 2016. 3. 29. (화) 15:00~17:00 · 주제: ODA 사업평가 · 발표자: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제 22차 젠더와 ODA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 2016. 5. 18. (수) 10:30~13:00 · 주제: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ODA와 SDGs · 발표자: 김경량 강원대학교 교수 · 자문: 이용진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대표
제 23차 젠더와 ODA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 2016. 12. 06. (화) 15:00~17:00 · 주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최신중점분야 사업·사례 소개 · 발표자: 김병관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실장
제 24차 젠더와 ODA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 2015. 12. 16. (금) 14:00~17:00 · 주제: SDGs와 환경 · 발표자: 장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협력실장, 박준현 전문연구원

3. 세부내용

가. 제 21차 젠더와 ODA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3.29. (화) 15:00~17:00, 본원 지하 1층 대회의실
- 주제: ODA 사업평가
- 강사: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 주요내용:
 - 본 포럼은 ODA 사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평가에 대한 포럼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됨.
 - 개발사업 평가의 목적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음. 평가의 목적으로는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긍정적인 책무성, 지식축적과 역량강화, 조직적인 학습이 있음. 따라서 평가를 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결과를 통해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현재 평가의 화두 중 하나로는 단일된 규율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임. 연구자들의 사회적 실험과 평가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 또 평가는 시기성이 강조되는 작업임으로 사업의 발전단계에 초점을 맞춰 시기별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평가는 사업주기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도 그 시기에 따라 달라져야함.
- 평가에서는 지표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사업의 결과를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지표로 선정해야함. 예를 들어 개발사업 중 역량강화에 목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는 의사결정권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주요 논의사항

○ 젠더 ODA 사업 평가의 어려움과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

- 젠더사업의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자료 수집법에 문제가 있음. 젠더문제는 문화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아서 질적 조사가 필요함.
- 정량적 측정이 어려우면 정성적인 측정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유럽의 기관들 같은 경우 인류학 전문가가 사업현장에 파견되어 관측을 함. 인류학적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측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을 정성적 측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성을 정량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여성역량강화가 목적인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아태사업의 경우 관련 사례들을 모으는 ‘most significant case’ 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음.

나. 제 22차 젠더와 ODA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5.18. (수) 10:30~13:00, 본원 3층 회의실
- 주제: 한국의 농촌개발분야 ODA와 SDGs
- 강사: 김경량 강원대학교 교수 / 토론자: 이용진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대표

□ 주요내용:

- 본 포럼은 농촌개발분야 ODA의 중요성과 여성들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농촌경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됨.
 - 개발도상국의 인구 70-80%가 농업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림수 산분야 개발은 식량안보, 고용창출, 경제성장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최근 10년간 국제 곡물시장의 변화로 인해 농촌 개발 분야 ODA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SDG에서도 농촌 개발 분야 관련 목표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의 1960년대는 90%의 농촌인구, 60%의 농촌 고용률을 가진 국가였음. 우리나라의 탈 농촌화의 특징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업 및 산업발달의 영향으로 노동력이 도시로 유인되었다는 점과 농촌소득이 자녀교육 투자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주요 동력인 인적자원을 개발했다는 것임. 개도국 농촌지역도 한국의 과거 경험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 있음. 그러나 지금처럼 농촌개발에서 새마을 사업만을 강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새마을 사업의 국제화는 힘들.
 - 현재 진행 중인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에서 여성들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여성이 마을대표이거나 여성참여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사업의 성과가 좋고 소득증대가 높음. 이를 통해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느끼고 보다 다양한 여성 참여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 주요 논의사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ODA 사업에 대한 제언
 - 개발도상국과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결정권과 의사소통을 위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또 누구와 업무협의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차관 이하급과 협의 시 차관의 사인을 포함한 문서를 만들어 협의 내용을 실행가능하게 해야 함. 또 사업이 1-2년

정도 지연되는 것은 매우 혼한 일임. ODA사업은 결국 위기관리라고 생각하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모든 업무절차를 서류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은 세부적인 사업수행이 뒤따르는 종합 사업보다는 정책관련 베이스라인 구축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같은 형태의 ODA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또한 연구원만의 장기 국제개발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현재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와 같은 경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마을대표와 같은 지역 대표들도 함께 초대해서 교류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언급됨.

다. 제 23차 젠더와 ODA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12.07. (수) 15:00~17:00, 본원 지하1층 소회의실
- 주제: 한국국제협력단의 최신 중점분야 사업 및 사례 소개
- 강사: 김병관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실장
- 주요내용:
 - 한국의 무상원조기관으로써 한국의 개발원조 사업을 선도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중점분야 사업 및 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한국의 개발원조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원의 ODA 사업에 적용하여 한국정부정책의 기여도를 향상시키려 함.
 - 또한 본 포럼을 통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향후 본원과의 협력구도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라. 제 24차 젠더와 ODA 포럼

- 일시 및 장소: 2016. 12. 16 (금) 14:00~17:00, 본원 지하1층 소회의실
- 주제: SDGs와 환경
- 강사: 장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협력실장, 박준현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 주요내용: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SDGs에서의 범분야로 (cross-cutting issue)로써 환경과 젠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아태 지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들은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본원과의 향후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본원은 젠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제 24차 젠더와 ODA 포럼에는 국내 환경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훈 글로벌협력실장을 모시고 SDGs에서의 환경이라는 주제로 학습의 기회를 가짐.
- 본 포럼을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환경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환경과 여성문제의 접점을 찾고 이에 해결방법 및 환경과 여성 관련 향후 본원 ODA 사업 연구주제 개발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4. 성과 및 제언

- 국제사회는 2030 개발의제에 합의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에 대한 결의를 다졌고, 특히 젠더는 SDGs 내에서 범분야 (cross-cutting issue)로써,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 분야에서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본원 ODA 사업 연구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고취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젠더와 ODA포럼에서는 국제개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학계, 시민단체, 유·무상원조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본원 연구진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함.

- 본 포럼에서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중점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는 본원 연구진의 ODA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본원의 단기적 ODA 사업 진행방향 수립에 도움을 줄 뿐 만아니라, 정책제언을 통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SDGs 이행관련 성과관리 시스템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포럼에서 본원의 ODA 사업과 유사한 성향의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인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의 발표를 통하여 본원 ODA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본원 ODA 연구 사업에 개선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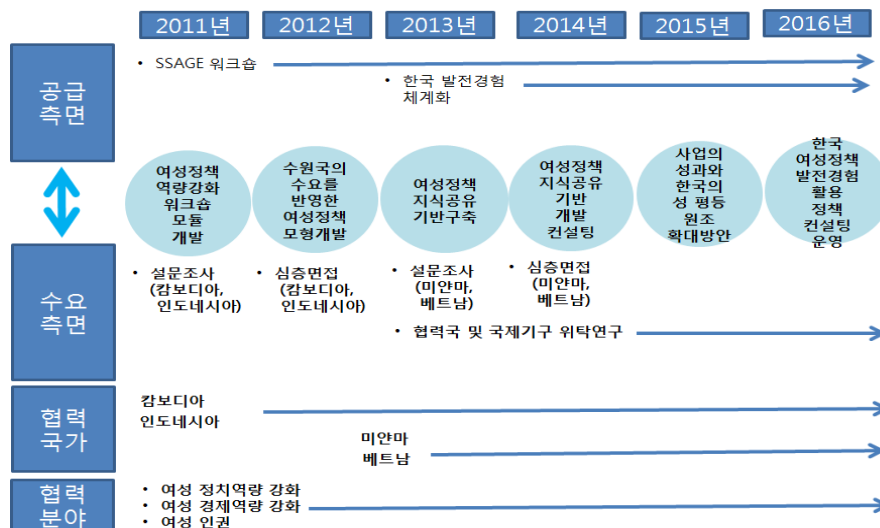
Ⅵ. 6차년도 연구사업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향

1. 다차년도 연구사업의 진화과정 및 의의 141
2. 향후 연구사업 추진방향 143



1. 다차년도 연구사업의 진화과정 및 의의

- 본 연구사업은 다차년에 걸친 ODA 연구사업으로서 연차를 더해가면서 그 내용과 초점이 종적, 횡적으로 확장·진화되어 오고 있음.
- 1차년도의 여성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모듈개발을 시작으로 SSAGE 워크숍이라는 기제를 활용하여 정책컨설팅 형태의 지식공유를 통한 협력국 현지의 역량 개발 및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도모해 왔음.
- 협력국 역시 1차 협력국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2차 협력국인 미얀마, 베트남으로 그 협력을 확대해 왔음.
- 수요 측면에서는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2013년도부터는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를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는 SSAGE 워크숍이라는 기제와 한국 발전경험 체계화 작업을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 비교우위를 발굴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이 협력국 현지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오고 있음.



[그림 VI-1] 본 연구사업의 진화과정

- 6차년도를 맞는 시점에서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 컨설팅 운영”을 부제로 한 금년도 사업은 그동안 본 연구사업의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임.
 - 그동안 본 연구사업을 통해 축적해온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자료와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뿐만 아니라, 협력국 현지 여성정책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고히 구축해온 네트워크는 효과적인 정책컨설팅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어줌.
 - 또한,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를 위한 기제로서 활용해온 SSAGE 워크숍은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여성정책 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효과적 정책컨설팅 과정으로서 발전해 옴.

- 다차년도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ODA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였으며, 필요시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할 시점임.
 - 본 연구사업이 올해로써 6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4개 협력국의 여성부처와는 상호 이해와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업무 관계가 구축되었음.
 - 매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국 방문 및 초청연수 등의 활동들은 협력국 부처의 업무 프로세스에 예측 가능한 요소로 통합됨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업무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캄보디아 여성부처와는 2015년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여성부처와도 MOU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임.
 - 협력국 여성부처 인사들과는 이러한 단순 업무협력을 넘어서는 우정을 쌓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친밀도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또한 아태지역의 다양한 여성관련 국제회의에서 협력국 여성부처 담당관들을 다시 조우함으로써 단순한 양자간 협력을 넘어서, 역내 다자 협력의 기회도 확대되는 부가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지속성이 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까지 이

들 국가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함.

- 기존 협력국와의 사업 중단 및 신규 협력국 발굴 혹은 기존 협력국 유지 및 신규 사업국 추가 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으며 후자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기존 협력국과의 사업 중단 시에는 효과적인 출구 전략 수립이 필요함.

2. 향후 연구사업 추진방향

- 향후에는 기존에 구축해놓은 자료와 사업기제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본 연구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17개 목표, 169개의 지표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양성평등 관련 독자목표인 5번 목표 뿐만 아니라 다른 목표에도 젠더가 크로스커팅 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사업 역시 이러한 SDG 상에 다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 영역, 예를 들면, 환경, 기후변화와 재난, ICT 등 다양한 주제영역에 대한 관심도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협력분야에 대한 다각화 고민도 필요한 시점임. 그동안의 협력이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인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앞서도 언급된 것처럼 SDG 프레임워크 하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고, 변화하는 한국 정부의 ODA 정책기조에도 연계하여 연구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이러한 의미에서 2017년도 사업을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4대 구상 중 하나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 과 관련하여



144 ●●●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여 추진함으로써 좀 더 주제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사업의 효과성과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리라 기대함.

- 마지막으로 협력국의 추가 역시 고민되는 지점임. 현재 4개 협력국과 공고히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면서 종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신규 국가로 협력국을 전환 혹은 추가하여 횡적으로 확대하나가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참고문헌

- Esplen, Emily. “Progress for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server 303 (2015): 14.
- OECD (2008). Special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 OECD (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 2012.
- OECD (2015).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Donor Charts.



Abstract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Policy Infrastruc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VI): Policy Consulting based on Korea's Development in Women's Policies

Eun Ha Chang
Eun Kyung Kim
Jung Soo Kim
Suk Yun Chun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is project report is an overview of our research and activities for 2016.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is multi-year research project. Chapter 2 introduces the main program of this project, the 2016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Workshop (SSAGE). It explains not only the program details but also summarizes the contents and comments from the lectures and field trips. It further details the project proposals developed by each country and find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future ODA agenda. This year, a total of 23 gender policy makers and experts from four partner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event.

Chapter 3 introduces another main pillar of this program, which is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research organizations from our partner countries and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year, KWDI cooperated with major research institutions from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on various issues such a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conomic empowermen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ural women. KWDI also collaborated with UN Women Asia Pacific for a baseline research on SDGs and gender.

Chapter 4 introduces three independent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to share best practices of South Korea's women's policies. Chapter 5 sums up the Gender ODA Forum, which has been held four times in 2016 with an aim of learning and updating on various issues related with gender and ODA issues around the world. Chapter 6, the final chapt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past six years' of this ODA research project, reviews its results and implications and discusses future directions.



2016 사업보고서-2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
: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

2016년 12월 29일 인쇄

2016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802-3 94330

978-89-8491-801-6 94330 (세트)